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Beyond Homo Economicus: Economic Fluctuations and Legalized Plunder in Vico's Cyclical History.

IM, HYUN-NAM

2026

Online at https://mpra.ub.uni-muenchen.de/128737/
MPRA Paper No. 128737, posted 19 Apr 2026 00:28 UTC

Beyond Homo Economicus: Economic Fluctuations and Legalized Plunder in Vico's Cyclical History

Im Hyun-nam

서문

신(新)경제학이란, 기존의 방식대로 행해져 왔던 방법론적인 경제학을 고수하기 위함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연구하기 위함도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경제학을 조망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목적에서 타당한 이유를 갖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밟아온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많은 부분에서 큰 오해와 오인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에서 비롯된 통속적인 단어의 오용은 물론, 그 단어를 잘못 정의하여 결국 '방정식'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만을 낳게 되었다. 하지만 방정식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실제로 우리는 갖가지 다양한 방정식의 큰 혜택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금리는 물론, 각 상품의 추이와 그에 따른 이자율의 모든 것까지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그리고 '동적이든 정적이든'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학의 본질도 동시에 잃게 되었음은 자명하다. 학계의 잇따른 반응과는 달리, 많은 군중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에 대한 접근은 학계와 군중 사이에서 실제로 아득한 거리만큼이나 떨어져 있다. 경제학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학문적으로 다루는 그 순간 우리의 상식과는 도저히 일치하지 않는 괴리된 공식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한 진실 또한 밝혀져야만 한다. 그만큼 괴리감이 발생했다면, 필히 어떤 예기치 못한 '필연성'이 자리하여 학문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실지를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도 사실에 부합하지 못하다. 경제학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확고한 답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셈이 된다. 학문과 현실은 그만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단 학자들도,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도 "이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어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자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엄밀히 연구하는 그 과정과, 매일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군중들의 상식이 항상 어긋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에는 학자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수많은 예외 사항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작업이 아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여태 외면해 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아야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항시 '예측'에만 매몰되어 있는 반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는 좀체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는 항상 불분명한 것에 반해,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역추적할 수 있고, 또 그 본질에 가닿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 즉 우리는 상황과 맥락에 걸맞은 '비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의 연구 방식으로 돌아가 '본질주의'를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논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차례로 다루어볼 참이다.

우리는 경제학을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와 본성에 초점을 맞추어 거시적인 연결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 뒤이어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실제 문헌과 역사를 추적하여 경제학의 진정한 본질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에, 이 논문의 저자는 실제 문헌을 참고하되 그 기간을 호메로스 서사시 이전으로는 둘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 기록은 그다지 참고할 만한 사정도 되지 못할뿐더러, 신화적인 색채가 많이 혼합하여 진정한 본질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 바로 그 신화적인 요소 자체는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신화, 그리고 종교와 함께해 왔다. 그것이 경제학과는 무관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잠바티스타 비코의 『새로운 학문』을 주로 참고하여 경제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며, 특히 그 난해한 사유를 탁월하게 우리말로 옮겨낸 조한욱 역자의 판본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실상 이 논문의 제목은 '잠바티스타 비코의 『새로운 학문』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류의 총체적인 역사를 탁월하게 관찰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비로소 그의 위대한 저서를 적극 참고해야만 경제학에 대한 진실성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사상과 철학을 기본적인 뼈대로 구성하여 경제라는 총체적인 현상을 밝히고자 할 따름이다.

또한 저자는 그 역사적인 실제 내용과, 비코의 은유적인 상징을 결합하여 인간의 심리와 연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과 진화심리학을 도입하여 기존의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오남용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여기서 설명하는 '인간의 심리'란 현대 최전선에서 다루기로 약속한 모든 단어들을 잠시 뒤로하고, 오로지 본질과 본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사실적인 단어들을 새롭게 정의내리고자 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시해 왔던 단어의 명명과, 또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거나 반대로 부정하는 등 여태 수백 년 동안 여러 학자들이 다루어 왔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수학적 방법론으로 나아가기 전, 그러니까 보통 그 시기를 헤르만 하인리히 고센까지 고려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학적 방법론은 이 논문에서 논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그 어떤 학자들도 감히 던지지 못했던 질문을 뜻한다. 즉 이 논문의 저자는 여기서 "소비란 무엇인가?"라든가 "생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생각이다. 그보다는 더욱 영속적인 주제와 연결하여 그 주제에 걸맞은 부위까지 시추해야 할 것이다.

이 시도는 당연히 독창적이지 않다. 우리 모두가 익히 이해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학자들도 제대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다. 고로, 이 논문에서 그토록 당연시 여겨져 왔던 질문들을 아주 당연하게 던지는 것은 인류의 긴 역사를 마주했을 때 전혀 부자연스러운 과정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우리 모두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의 요소 각각이 극도로 이상하게 보이게 된다는 지점도 필히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1]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자본'이란 무엇인가, 또는 '재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심층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논하는 '자본'이나 '재화'라는 단어보다, 그 자체에서 비롯된 역사성을 포함하여 동시에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는 개념이자, 또한 언제나 낯선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부를 때 가장 세속적인 사물과 자연스럽게 연관을 짓는 버릇이 곧잘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철저히 돈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대명사로 사용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욕망하고 있는 대상이자, 우리 모두가 쉽게 획득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도 언제나 돈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개념이자 한없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 소개된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의 튼튼한 법률을 세우기 위해 돈이 가져오는 타락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다른 무엇보다 그것의 획득을 금하게 했다. 입법자 리쿠르고스는 기원전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약 800년 전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그는 '본성적으로' 돈의 타락성을 이해했던 것이다.

정확히 그 시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태동되던 시기였다. 비코의 저서에 따르면, 호메로스는 마지막 영웅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민중 인격체였다. 하지만 카를 멩거가 정확히 지적했듯, 호메로스 서사시에도 일종의 화폐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양(羊)으로 대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목자(牧者)들은 양을 손쉽게 데리고 다닐 수 있었으며, 동시에 시장으로 가서 교환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언제나 돈의 개념을 현상과 관계에만 매몰하여 교환 수단이자 수송 수단으로 정의 내리기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돈은 이처럼 간단한 개념으로 지칭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에서 돈은 유용한 수단에만 지나지 않으며, 돈을 버는 행위는 외부의 압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리쿠르고스의 법리적인 해석도 이해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굳이 리쿠르고스가 금전의 타락성을

우려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플루타르코스가 명확히 지적했듯이, 돈은 언제나 타락을 가져오고 또 민중들을 해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돈을 단순히 '수단'으로 정의 내릴 수 없으며, 그보다는 더욱 끈끈하며 유착 관계인 '타락'으로 새롭게 명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은 언제나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 이는 호메로스 서사시에도 명백히 나오는 지점이다.

『일리아스』 6권에서 디오메데스는 백성들의 목자이자 힙폴로코스의 아들인 글라우코스에게 말을 건네는데, 오이네우스는 자줏빛 혁대를 주었고 벨레로폰테스는 손잡이가 둘 달린 황금 잔을 주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어서, 234-236행에는 제우스가 글라우코스의 분별력을 앗아가 황소 백 마리 값어치가 있는 본인의 황금 무구들을 황소 아홉 마리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 디오메데스의 청동 무구들과 맞바꾸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일리아스』 23권 703-705행에는 파트로클로스 장례 경기를 위해 펠레우스의 아들인 아킬레우스가 직접 상품들을 내놓으며, 이긴 자를 위해서는 소 열두 마리 값에 해당하는 큰 세발솥과, 지는 자를 위해서는 소 네 마리 값에 해당하는 (수공예에 능한) 여인을 각기 비교하는 부분도 나온다.

이것을 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명예를 두고 다투는 영웅들의 미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먼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어찌하여 각 품목에 대해 무엇이 우월하고 무엇이 열등한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찌하여 그만큼 높은 가치에는 그에 비례하는 물품을 내놓고, 그만큼 낮은 가치에는 그에 비례하는 물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즉 이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낮은 가치에는 일말의 여지조차 없이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격하했다. 그렇다면 실상 아리스토텔레스가 누차 강조했던, 돈이 돈을 낳는 악순환의 비난이 이미 호메로스 당시부터 행해져 온 관행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비단 돈이 돈을 낳을 필요는 없으며, 돈에 귀속된 본질적인 타락성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다. 그리고 금전을 포함하여, 본인의 인생을 단순히 잘 가꾸고 또 발전할 여지가 가득한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필히 탐욕과 욕망을 부추겨 파멸하도록 작용했다. 하지만 이 시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돈이 언제나 '화폐'처럼 기능할 필요도 이해도 없었으며 때로는 명예와 결부되기도 했고 때로는 불명예와 결부되기도 했다. 그래서 항시 돈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2]　약탈에 대하여

소스타인 베블런은 약탈을 포함한 인간의 야만적인 행위 전반을 일종의 '과시적 소비'로 해석했다. 남성의 뛰어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사나 그 밖의 여성들이 행하는 수동적인 유약함이 아닌, 칼과 방패를 쥐고 바깥을 돌아다니며 맹수를 사로잡거나 또 전쟁에 참가하여 적장의 목을 베는 등 다소 피상적인 관찰을 내놓았다. 하지만 베블런이 착각한 가장 큰 지점은 다름 아닌 '종교'라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비코가 명쾌하게 설명한 바 있는데, 최초의 인류는 스스로를 억제하고자 비로소 법률의 기틀을 만들었고, 그것이 곧 보편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아 섭리·혼례·장례라는 불멸의 요소를 전통적으로 지켜왔다. 이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야만적인 스키타이족의 전통과,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야만적인 게르만족의 전통이 정확히 방증하는 사실이다. 고로, 베블런은 많은 부분에서 크게 오해를 했던 것이다. 언제나 각 부족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만의 유피테르를 섬겨왔으며, 또한 그들만의 방식으로 신성하게 여기고자 봉헌물을 신에게 바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소 피상적인 식별에 따라, 설령 그들이 겉으로는 여성의 유약한 행위 모두를 기피했을지라도, 전통적인 미덕에 입각하여 고귀한 행동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약탈이란 그들에게는 언제나 고귀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베블런이 말하듯, 그 고귀함은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 구성된 효율적인 관례나 과시가 아닌, 그 행위가 철저히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원시 규율이었다. 그것이 곧 비코가 말한 것과 같이, 섭리·혼례·장례라는 불멸적인 요소와도 같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법칙이었다.

이것은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가 크게 오해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그는 고대 로마가 그리스의 민족성에서 시작했음을 지적했고, 12표법마저 그리스의 법률을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도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법률을 실제로 참고하기 위해 그리스 본토로 투입된 사절단(원로)들이 다시 이탈리아반도로 돌아오자마

자 토지 분배 법안을 둘러싼 투쟁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고귀한 법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타국으로 투입된 상황이라면, 그들이 로마 본토로 돌아왔을 때 호민관들은 토지 분배 법안으로 감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 것이다. 호민관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단지 시간 벌기에 가까웠다는 식으로 주장했을지라도, 그 당시에 고귀한 법률을 세운다는 명분은 그 누구도 그에 반해 거스르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귀족들과 평민들이 계급상 분리되어 있었다는 해명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러니 실제로는 그리스 본토로 투입된 사절단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 된다. 이들은 그리스 본토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 디오니시오스는 사절단의 복귀와 평민들의 투쟁이라는 두 맥락의 절묘한 충돌을 그대로 묵인했다. 비코는 문명 발달 단계에 따라 12신 중 넵투누스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다고 보았으며, 리비우스가 간과했던 이탈리아반도 지명들의 기원이 본래 '제단(ara)'에서 비롯되었음을 논증했다.

인류의 역사란 언제나 약탈과 함께해 왔다. 그리고 약탈을 명예로운 행동으로 당연시했다. 이는, 베블런이 주장하는 대목과는 상이하다. 피상적인 명예가 아닌, 본질적인 명예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들은 약탈이라는 행위를 아주 고귀하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1장에서 전개했던 돈의 정의를 새롭게 환기시킬 수 있다. 돈은 시대를 불문하고 '본질적으로' 타락성과 깊은 관계를 가져왔다. 하지만 타락성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뒤늦게 발현되었다. 그 시기가 문헌학적인 자료에 따라, 마지막 영웅시대를 기록한 호메로스에서 발견된다. 즉 호메로스 이전에는 분명 약탈을 가장 덕스러운 행위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호메로스 시기에 이르러선, 민중들이 약탈이라는 행위에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를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 시기가 입법자 리쿠르고스와 동시에 맞닿는다.

비코는 최초의 영웅을 '도적' 또는 '해적'으로 두었다. 그가 줄곧 강조했던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장면은 정확히 이것을 증명한다. 아가멤논은 브리세이스를 빼앗음으로써 명예로운 도적질을 행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아킬레우스는 브리세이스를 빼앗김으로써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3] 고대 약탈에 대하여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약탈의 포괄적인 면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즉 돈의 타락성이 호메로스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부터 전개된 인류의 역사는 정확히 그 사실을 증명한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수많은 예를 보더라도 말이다.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자신의 보물들을 보여주며,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가?"를 질문했다. 클레오메네스 1세는 밀레토스의 참주인 아리스타고라스에게 뇌물을 받을 뻔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동 통치자 데마라토스를 폐위시키기 위해 델포이의 무녀를 매수했다. 마라톤 전투의 영웅 밀티아데스는 파로스 섬 원정과 관련하여 막대한 보물을 탐하려다 완벽하게 실패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1권을 보면, 파우사니아스는 페르시아 풍속에 사로잡혀 타락했다. 키루스는 리산드로스를 신뢰하여 그에게 막대한 재물을 안겨주었다. 플루타르코스는 리산드로스에 의해 스파르타가 타락하게 되었다고 서술했다.

이처럼,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공통점은 호메로스 이후부터는 돈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곧 '타락성'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大)카토는 사치품을 들이지 못하도록 높은 관세를 매겨버렸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요한 지점을 필히 목도해야만 한다. 고대 인간은 본능적으로 돈을 '타락'과 결부 지었고, 그래서 카토는 그것이 '악하다'라는 개념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로부터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입법자 리쿠르고스는 이미 '돈'이라는 것이 민중들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주 잘 이해했던 것이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악하다'라고 불린다면, 결국 탐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타락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그래서 고대 지휘관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외부에서 필히 돈을 조달해야만 했다. 함선, 병사, 그리고 급여가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지휘관들은 외부의 적과 내통하거나, 또 타국의 왕이나 총독에게 간청하여 그에 비례하는 양만큼 조달해야 했었다. 왜냐하면 자국군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본인이 현재 타국에 딛고 있는 처지라면 (어떤 사정으로 인하든) 자국군이 행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만히 감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데모스테네스는 나태한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먼저 정신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움직인 다음, 지극히 실무적인 재화(함선 수와 병사 수 등)도 동시에 언급하며 그 대안도 보였던 것이다.

요점은 이렇다. 호메로스 이후부터는 약탈이라는 행위를 치르는 데 있어, 더 이상 신적인 그 어떤 요소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재물을 탐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다. 당시 민중들은 모두 재물에 대한 탐욕을 수치스러워했다. 역으로 그 수치심이 지휘관들의 마음을 자의적으로 부추기도록 설득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들도 이와 흡사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것을 부끄러워했으며, 또 그것을 왜 그토록 탐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명백히 보더라도, 재물에 대한 탐욕은 다른 탐욕에 비해 그 정도가 아득히 높다고 할 수 있다.

[4] 단어의 새로운 정의

고전 경제학의 가장 큰 실책은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버릇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경제는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항상 상반되는 현상을 곧잘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경제학의 이율배반에 대해 크게 논할 생각이 없다.

예를 들어 “이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뵘바베르크는 『자본과 이자』 1권에서 이자의 거시적인 역사의 지도를 그렸다. 이어서 그는 다섯 가지, 생산·이용·금욕·노동·착취로 구분했다. 그리고 그는 최종적으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시간 선호 개념을 피력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가 반박하고 싶었던 다섯 가지, 즉 생산·이용·금욕·노동·착취가 모조리 성립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가 피력했던 시간 선호율도 동시에 성립이 된다. 고로, “이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실상 다섯 가지를 포함하여 그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시간 선호율 모두가 다발적으로 성립이 된다.

뵘바베르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섯 가지를 적극 비판했다. 하지만 그가 열렬히 떠들고 싶었던 시간 선호율에도 맹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발생이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고전 경제학자들과 현대 경제학자들은 경제 현상을 '자연스러움'과 결부 짓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자연스러움이 성립되기 위해 그만큼 긴 과정과 사투를 벌여왔다. 그래서 여전히 자연스러움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현재 딛고 있는 현실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무언가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민중(시민)들 사이에서 내재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보통 그 과정을 법철학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철학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관습법까지 함유하고 있다. 관습법은 민중들 사이에서 수많은 시간을 거쳐 발생한 역사의 흔적이다. 마치,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수백 년 동안 시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거쳐왔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뵘바베르크의 관점만 도입하면 나머지 다른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도가 심히 요원해진다. 어찌하여 카토는 사치품 규제에 그토록 공을 들였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이자를 더 이상 낳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가할 수 있었는가? 이는, 데이비드 리카도 당시부터 논의된 정부 규제의 악습을 도입하면 명백히 '악'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고대 로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중해 패권국으로 당당히 자리했다. 그리고 돈이 돈을 낳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재를 가했다고 해서 고대 로마의 경제 상황이 타국보다 형편이 더욱 좋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모든 학문을 관통하는 인과학(因果學)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이 새끼를 치는 현상을 타락의 구심점으로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는 그 현상을 명백히 '악'으로 규정지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경제학자들의 보편적인 게으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설명이 될 수 없는 요소들을 더 이상 탐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보통 이 시기를 알프레드 마셜이 활동했던 당대로 거슬러 간다. 그는 『경제학 원리』 서문에서 단어의 확실한 정의부터 내리고 넘어갈 필요성을 역설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경제학은 단어 하나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저서의 혼란함을 방지하고자 단어의 확고한 명명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고 넘어갔다. 그의 태도는 참으로 옳은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그는 보편적인 성질을 빌려 단어의 오용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민중들의 관습을 적극 차용했다. 하지만 알프레드 마셜은 본질적으로 현상 그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마셜 포함하여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철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이는 마르크스가 경제학을 철학으로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하여 그의 철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헤

겔 변증법의 조야한 유물론적 환원'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알프레드 마셜은 이 행위를 당연하게 여겼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비판하기 위해 가장 노력한 학자는 뵘바베르크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자신의 이론을 또 반복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모순점을 낳고 말았다. 그의 논리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토대 위에서는 조금도 성립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이자'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학식과 지식이 부족하여 이자 현상이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미신에 사로잡혀 '악'으로 규정했다는 말이 되는가? 명백히 돈이 돈을 낳는 행위를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돈이 돈을 낳는 순간 발생하는 거시적인 경제 지도를 무시하는 학자들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여파는 결국 시민들(소비자)에게로 뻗어간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언제나 막대한 자본을 획득해 온 존재는 다름 아닌 고리대금업자와 상인인데, 이 둘의 공통점은 유통업이다.

이자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가면을 잠시 빌려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단 하나의 답변이 통용될 수 없다. 뵘바베르크가 주장했듯, 생산·이용·금욕·노동·착취라는 다섯 가지로도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시간선호율로도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대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이자의 악습과 철폐도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엄격히 주장했던 이자의 악습과 철폐도 설명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자에 대한 규제를 국가나 사회가 적극 주도할 수도 있으며, 시간선호와 위험 관리와는 무관하게 고리대금업자가 그저 높은 이자율을 매겨 민중들을 대상으로 착취를 가할 수도 있으며, 근대 상인들이 선대제 상술로 유통을 독점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주장했던 '보호무역론'을 적용하여 이자율의 흐름을 조율할 수도 있다. 이자는 이 모든 것을 언제나 설명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자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명확하게 내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자를 총체적인 화폐의 흐름과 유동성으로 계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금리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묶여 있기 때문이다.

모순적으로, 우리는 단어를 제대로 정의 내리는 시도를 과감히 포기해야만 한다. 무엇으로 정의 내리는 순간 여태 외면했던 다른 양상이 튀어나올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 본질까지 설명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도를 역으로 추적해야만 한다.

[5]　본질에 대하여, 첫 번째

돈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돈을 재화라고 정의 내려서는 안 되며, 재물·자본·화폐·보물·금전으로 정의 내려서도 안 된다. 하지만 그 방향을 지정하면 명확하게 흐름을 괄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를 정확히 호메로스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성한 유피테르가 아니라 타락한 유피테르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단 하나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인간이 그 사물에 마땅히 취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결국 단 하나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탐욕이다. 돈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냄새를 맡는 탐욕은 결코 숨길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설령 아이일지라도 본능적으로 탐욕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또한 돈에 대한 탐욕은 명백히 다른 사물에 대한 탐욕과는 태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탐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야 한다. 탐욕은 그 모든 대상에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명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며,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고, 신분 상승에 대한 탐욕이 있으며, 학문에 대한 탐욕이 있다. 그 밖의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학문에 대한 탐욕을 ‘악’으로 규정짓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책에 대한 탐욕을 두고 ‘악’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하지만 돈, 명예, 권력에 대한 탐욕은 보통 ‘악’으로 쉽게 규정된다. 그리고 돈, 명예, 권력에 대한 탐욕의 방향성은 모두 궤를 달리한다. 그렇다면 돈이란 명예와 권력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도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탐욕은 그 정도를 가볍게 뛰어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와 권력에 비하면 돈에 대한 탐욕은 쉽사리 무시할 수 있다고 여긴다. 언제나 돈은 명예와 권력을 위해 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대상이 바로 돈이다. 명예와 권력은 오히려 주체자가 눈앞에 전시를 하는 반면, 돈은 눈앞에 드러나는 법 없이 항상 은닉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탈세 조사를 시행하면 금세 발각되는 대상이 바로 돈이다. 보통 비밀스러운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장부를 속여 또 다른 돈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돈은 예로부터 권력자들의 비밀스러운 다리 역할로서 민중들 사이에 드러나는 법 없이 숨겨져 왔다. 그래서 권력자의 전 재산을 추적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까다롭기 마련이다.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비밀스러운 금고까지 파헤쳐야 하는데, 이것을 간단히 조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인간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명예와 권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마치, 겉으로 바라보면 불륜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래 숨기고 싶은 정부(情夫·情婦)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이처럼 명확하니 더 이상 설명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돈은 명예와 권력과는 달리 물질적 수치심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명예와 권력은 다소 추상화되어 있어 고대인들은 이에 대해 신의 전조로 말미암은 혜택으로 포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은 보편적인 물질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돈을 탐한 자에 비해 명예와 권력을 탐한 자가 더 큰 수치심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돈은 물질적 대상인 데 반해, 명예와 권력은 신의 전조로 말미암은 추상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순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물질적 대상인 돈을 적극 탐하는 자는 수치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반면, 추상적 대상인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자는 언뜻 건강한 사람처럼 보인다. 대놓고 돈을 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대놓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자는 오히려 민중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항시 권력자들은 직접적인 수치심의 대상인 돈을 언제나 비밀리에 보관하여 마치 정부(情夫·情婦)처럼 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경위가 발각되면 명예와 권력의 실추와 함께 그 권력자의 지위는 하늘 아래로 추락한다. 고대인들은 명예와 권력을 신의 전조로 말미암은 절대적인 조건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는 자는 필히 자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라는 물질적 대상은 언제나 비밀리에 이동하기 바빴던 것이다.

돈-명예-권력은 하나의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각기 떨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돈에 대한 집착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항시 책을 읽으며 진리 탐구가 목적인 사람들은 돈에 대해 거의 욕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부적 압박에 의해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은 그 이상을 탐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관찰하는 인간 군상을 통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는 그 탐욕에 대해 희망하는 사람들만 모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탐욕을 보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구

태여 돈을 탐할 그 어떤 명분조차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은 자신의 현 위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현 위치에 대한 불만은 동시에 명예와 권력의 상승이라는 원초적인 욕구에서 시작된다. 그 즉시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아득한 미래를 꿈꾼다.

그렇다면 돈을 탐하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탐한다는 소리와 동격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돈 그 자체만을 탐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정말로 돈 그 자체만을 탐하게 된다면, 돈을 버는 족족 그것을 불에 태워 없애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위로 올라가는 등 이런 무의미한 과정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런 광인(狂人)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방향성을 곧 '열등감'으로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정확히 열등감이 분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호메로스 시기 이후부터 관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약탈이 신성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열등감이야말로 돈에 대한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된다. 실상 그 누구도 돈 그 자체만을 탐하지는 않는데, 언제나 명예와 권력이 뒤따라 붙기 마련이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현 위치에 불만을 품는 존재들이 열등감에 이기지 못하여 돈을 탐한다. 하지만 진리 탐구에 더욱 깊은 관심을 품는 존재들은 돈-명예-권력을 탐하는 대신 과거의 사상가들과 치열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열등감을 품는다. 단, 그 누구도 이런 사람들에게 불건강하다고 지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상가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을 두고 열등하다는 식으로 내뱉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역시나 그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가지기 마련인데, 여기서 또 열등감이 비롯됨을 볼 수 있다. 여태 본인은 돈-명예-권력을 탐했던 것에 반해, 저들은 오로지 지식에 대한 탐욕만을 부리고 있으니 그 모습이 심히 괘씸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필사적으로 지식에 대한 탐욕을 적극 가지는 존재들을 짓밟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이들은 여태 본인들이 노력했던 과정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결국 돈에 대한 탐욕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인 것이다. 그리고 현 위치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더 높은 위치로 상승하고자 스스로 열등감을 비료로 삼는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들을 반복적으로 내뱉는 것이다. "수중에 천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수중에 천억이 있다는 상상을 머릿속으로 실현시키며 무엇부터 구매할지 그 리스트를 정량화한다. 그러니 돈에 대한 탐욕은 현 위치에 대한 끔찍한 불만에

서 비롯되고, 바로 그 불만이 열등감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여태 경제학자들의 단어 정의가 혼란함을 거듭해 왔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문을 또 제기해야 한다. 열등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6] 본질에 대하여, 두 번째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들은 열매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지며 자신의 알몸을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하느님은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라고 물었다. 이들은 알몸의 상태를 본능적으로 부끄러워하게 되었으며, 곧이어 본인들이 알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지상으로 추락시켜 고통의 근원을 심었다.

창세기의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저서에서 크게 논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은, 타락의 상태를 인지하게 되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부분은 실로 중요한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열등감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카인은 아벨을 살해했다. 하느님이 그가 바치는 제물을 경시하고 아벨이 바치는 제물을 우대했다는 이유에 의해. 하지만 카인은 아벨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살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벨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미쳐버렸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다.

즉 열등감의 기원은 바로 성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알몸의 상태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음에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알몸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처럼 허리에 둘렀다. 이는 성욕에 대한 최초의 인지적 사건이다. 바로 그 순간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휘몰아쳤으며, 동시에 죄성이 잉태되어 이 두 가지 뿌리에 달라붙고 말았다. 그래서 성욕-불안-죄성은 하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는 최초의 질적 도약을 일컫는다. 이들은 처음으로 감정의 세분화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 감정의 세분화를 질적으로 완성시키는 기본적인

밑그림은 성욕-불안-죄성이다.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다시 말해서 카인이 자신의 열등감에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를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바로 그 열등감의 근원적인 바탕은 성욕-불안-죄성으로서 그는 동시에 성욕에 대한 비상과, 불안에 대한 요동과, 죄성에 대한 응축에 짓눌려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최초로 성욕, 불안, 죄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여 하느님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고로, 하느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밑그림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 1장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그는 다소 미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래서 아담이 알몸의 상태를 깨닫기 전에,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언제나 가능성 속에서 부유하고 있었다는 말은 비약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알몸의 상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학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라는 것은 곧 성욕-불안-죄성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음을 자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 하나조차 배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며 일종의 평형 상태로 만드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불안은 질적인 도약을 일으키게 하는 핵심적인 문지방이 아니다. 불안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성욕과 죄도 그에 비례하는 만큼 증폭되는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번 타락한 사람은 계속 타락하게 된다는 말도 예로부터 떠돌아다녔던 것이다. 한번 돈에 맛 들리면 계속 돈에 맛 들리고, 한번 명예와 권력을 탐하면 계속 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번 이성과 눈을 마주치면 계속 마주치고 싶어지는 법이고, 한번 사랑을 하면 계속 사랑을 하고 싶어진다. 한번 경험했다는 것은 곧 기본적인 밑그림이 질적인 도약을 이루었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한다.

키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그가 자식인 이삭을 하느님에게 바치려 했을 때 질적인 도약을 감행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리에 완전히 어긋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질적인 도약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느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이 실존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들은 정말로 하느님이 실재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여 제물과 봉헌물을 바치는 행위는 조금도 이상한 개념이 아니다. 이 시기가 바로 약탈이 신성시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내면적으로 질적인 도약과 현기증을 느꼈다는 대목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가깝다. 아

브라함은 정말로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여겨, 그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에 그저 사로잡힌 필멸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미학적인 태도를 부여할 수는 없다. 아브라함은 그 압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다. 이것은 비코가 말한 '신의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키르케고르는 19세기에 만연한 바이런적 영웅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끼우고 말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는 하느님에 대한 경이로운 존경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욕과 불안은 동시적으로 발생하며 죄성은 두 가지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여기서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바라보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의 감정조차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바로 이 평형 상태 덕분에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다닐 수 있으며, 매일 고통을 받을 이유도 없고 매일 행복을 느낄 이유도 없이 그저 잠재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세 가지 뿌리도 즉각 반응하여 이런저런 곡절을 보이게 된다.

이는 근대 철학자, 스피노자와 존 로크가 정의했던 인간의 도식적인 감정론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 인간은 결코 단순히 어떤 감정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밑그림이 성욕-불안-죄성으로 성립된다. 고로, 데이비드 흄이 2차원으로 전개했던 감정의 순환론조차 실제로는 정확한 개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서로 반대되는 현상은 단 하나의 관점에서 명확히 제시된다. 그래서 항시 양가 감정이라는 모순됨을 인간은 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이 발전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서로 반대되는 감정의 성질이 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이유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를 증오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용기와 비겁함은 하나로 묶이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용기와 슬픔도 하나로 묶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용기를 가진 자가 언제나 슬픔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피에르 베주호프는 나폴레옹에 대한 증오심과 실제 전장에 투입하기로 결심하는 용기,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한 인류의 슬픔을 아주 복합적으로 느낀 인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모순성과 함께 나아가는 법이다.

[7]　성욕-불안-죄성의 심층적인 고찰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욕, 불안, 그리고 죄성의 관계도에 종속되어 있다. 이는 선험적이다. 그래서 인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공허감이요, 하나는 외로움이요, 하나는 열등감이다. 그리고 인류의 긴 역사는 이 세 가지 방식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천의 역사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우리피데스의 희곡을 감상했을 때 공허감이 신에 대한 경외로, 열등감이 수치심으로, 하지만 외로움은 뿌리조차 확인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손쉽게 눈치챌 것이다. 외로움은 데카르트 이후 근대의 산물이다. 하지만 외로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미 호메로스는 오뒷세이아에서 페넬로페의 조신함을 상세히 묘사한 바 있다. 그래서 공허감, 외로움, 열등감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공허감, 외로움, 열등감이 데카르트 이후 근대의 완벽한 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로, 자코모 레오파르디의 분노와 단테 알리기에리의 분노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인간을 설명하려면 필히 공허감, 외로움, 열등감이라는 세 가지 '열매'로 설명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고대 희곡부터 근대 희곡, 그리고 현대 희곡이 충실한 증거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그 어떤 고대 철학자들도 근대 철학자들도 세 가지 열매를 자세히 논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학에서는 세 가지를 기본적인 재료로 삼아 줄곧 다루어 왔다. 이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되었다는 방증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전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담론'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사회성'으로 해석한다. 즉 자신의 공허감, 외로움, 열등감을 이기지 못해 타인과 부닥치며 살아야 한다는 얕은 뜻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결코 공허감, 외로움, 열등감의 기제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를 오판하여 자신의 증폭된 공허감, 외로움, 열등감의 열매로만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성욕-불안-죄성을 엄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격에 착수하여 적어도 18세기 이후를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확히 그 시기에 임마누엘 칸트가 비판서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걸작 『판단력비판』에서 자세히 논한 '숭고론'은 바로 이를 나타낸다. 하지만 칸트는 그 자리에 '죄성'을 두지 않았는데, 실제로 수학적 크기로 환원되는 웅장한 자연에 압도당한 자유로운 방랑자들은 그곳에서 깊은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칸트의 선험적 도덕철학은 바로 이 현상에서 비롯된 '죄성'인 것이다. 하지만 칸트는 단 한 번도 성욕-불안-죄성을 다루지 않았다. 인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성욕과 불안, 그리고 죄성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실상 인간 본연의 가치를 설명하기를 과감히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가장 핵심인 공허감과 외로움, 그리고 열등감을 설명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인간 본연의 가치를 설명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칸트는 선험적인 도덕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순수이성의 유일한 자리로 두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는 "어째서 그 자리에 도덕이 자리하는가?"라는 질문과 그 해답을 던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이유를 순수이성의 변증법으로 해명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순수이성의 자리에 선험적인 도덕이 놓일 수는 없으며, 애초에 전혀 다른 기제로 설명되어야 마땅하다. 인간의 명시적인 폭발력이 어떤 순간에 발화되는데, 이는 성욕-불안-죄성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잘못된 이율배반을 설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엄한 자연을 감상했을 때 느끼는 '숭고함'은 비로소 이런 관점에서 해명이 된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야 한다. "왜 인간은 돈을 탐하려고 하는가?" "왜 인간은 성욕에 짓눌려 사는가?" "왜 인간은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가?" "왜 인간은 불륜을 저지르려고 하는가?" "왜 고대 지휘관들은 덕스러운 존재로 칭송되면서, 반대로 전장에서는 그토록 많은 병사들의 목을 베어냈는가?" 이러한 질문을 외면한 이상, 진정한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힘들뿐더러, 진정한 사상가라고 불리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이런 원초적인 인간적 감각 또한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는 실천이성 이율배반을 '덕'과 '행복'으로 두었다. 이 역시 순수이성의 변증법처럼, 실천이성 또한 변증법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망상에 가깝다. "왜 고대 지휘관들은 덕스러운 존재로 칭송되면서, 반대로 전장에서는 그토록 많은 병사들의 목을 베어냈는가?" 이

질문 하나에 칸트의 거시적 질문은 의미도 없이 증발한다. 비단 칸트뿐만 아니라, 근대 철학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야만적인 질문들을 모조리 회피했다.

여기서 착각이 발생한다. 성욕-불안-죄성이 원초적인 밑그림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천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죄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낭만주의 시인들이 묘사한 영웅들과 실제 인간들이 감각하는 그 미묘한 지점을 전혀 짚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 시인들이 자연을 찬양하고 또 묘사하며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죄성의 깊은 개입이 아니면 결코 설명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샤토브리앙이 낭만적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문명을 벗어나 자연으로의 탈피 또한 이 기본적인 기제를 바탕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 거친 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인들은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제는 18세기 이후로만 줄곧 관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결단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것이 도통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라는 진정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다. 자유라는 개념은 18세기 이후로 수입된 신문물이다. 그러니 온갖 미학적인 장치가 덕스럽게 장식되어 버린 것이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서 히스클리프가 그랬듯이. 어째서 예술가들이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사상에 깊이 감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존 로크는 자유를 그저 '주체의 능동적인 움직임'으로만 해석했다. 존 로크는 자유의 개념을 조잡한 신의 전조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낭만주의 시인들은 자연을 통해 인간 세상에 대한 무(無)를 노래하면서 자유로운 방랑자에게 죄책감을 몰래 심어 버렸다. 인간 세상에 대한 지독한 환멸을 드러내면서. 자연과 문명을 감각적으로 비교하며 우주 만물의 무질서가 오히려 이들에게 숭고한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칸트는 '천재'를 두고 신에게 사랑받은 존재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동시에 숭고한 자연을 감각하며 드러나는 정확한 기제는 성욕의 폭발적인 도약과 함께 급격히 떨리는 불안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숭고한 자연을 감각했을 때 느끼는 현상은 신에 대한 징벌로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렀을 때 시인들은 그 감각에 대한 징후를 '경외감'으로 표현했다. 이는 요한 요아힘 빙켈만의 미학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된 섬세한 증상으로 대변되었다. 하지만 본질은 결코 고대 시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빙켈만은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대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장 파울

이 『미학 서설』에서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숭고한 자연에 압도당한 자유로운 방랑자는 그 순간 성욕-불안의 일시적인 도약과 함께, 죄성에 깊이 발을 들이며 억제됨을 느끼게 된다. 비코는 최초의 인류가 동굴 속에서 천둥소리를 엿들으며 신에 대한 경건함이 발생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억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서 표현되는 최초의 인류가 이렇다 할 질적인 도약을 느꼈을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최초와 고대는 신에 대한 경건함과 수치심으로 곧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언어가 시대에 따라 발전하면서 점차 빠른 약강격으로 분절되듯이, 우리의 감각도 시대에 따라 발전하면서 점차 섬세하게 분절된다.

낭만주의 시 속 영웅들은 모두 닮아 있다. 이들은 성욕-불안-죄성으로 이어지는 선험적 관계도 속에서 깊은 공허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열등감을 쉽게 떨쳐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곤차로프의 『오블로모프』를 비평했던 도블로류보프가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래서 비평가 도블로류보프는 오블로모프 기질에 해당하는 영웅들을 선형적으로 나열했다. 오네긴-페초린-오블로모프-루진.

그러므로 우리의 본 작업의 목표는 이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시대적 증후에 걸맞은 성욕과 불안, 그리고 죄성을 연구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거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관찰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성욕-불안-죄성을 차례로 정의 내리며 철학적인 변증법을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 작업은 이것을 바탕으로 한 '경제표'이기 때문이다. 만약 성욕과 불안, 그리고 죄성을 하나씩 자세하게 논증하고 또 성욕과 불안의 관계를, 불안과 죄성의 관계를, 성욕과 죄성이 어떻게 불안과 연결되는지 등을 엄격하게 논하기 시작하면 그 성격은 곧 하나의 방대한 철학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이 논문의 주된 성격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도식적으로 그려 보자면 이렇다. 나중에 더욱 면밀히 후술하겠지만, 로마 마지막 계승자인 나폴레옹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경건함과 수치심이, 그 이후에는 열등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8] 본질에 대하여, 세 번째

비코에 의하면, 인류가 동굴 속에서 천둥소리를 들었을 때 신에 대한 경건함이 발생하여 스스로에게 억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남자는 여자를 받아들이고 또 아이를 낳으며 법률의 기틀을 마련했다. 바로 여기서 남자에 대한 가부장권이 발생했다. 그리고 남자에 대한 권위는 신에 대한 위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파테르는 절대적인 권위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파테르는 가족을 포함하여 자식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쥘 수 있었다. 비코는 그 본질을 두 단어로 설명하는데, 아버지를 파테르(pater), 그리고 자식들인 예속민들을 파물리(famuli)라고 부른다. 고로, 이 당시에는 고귀함에 대한 경건이 자리 잡았다.

고대 로마 귀족들이 평민들에게 '전조는 우리의 것(auspicia esse sua)'이라고 불렀던 것, 로물루스가 피난처(asylum)을 세우고 수많은 피난민들을 받아들인 것, 이어서 불과 물은 혼인의 적법한 축하 상징이었던 것, 즉 이 모든 것들이 평민에 대한 지배권을 귀족들이 쥐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리비우스 『로마사』 4권에서는 카눌레이우스 통혼법이 귀족들에게 처음으로 제시되지만, 귀족들은 그 제안을 과감히 뿌리친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도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족과 평민은 언제나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리비우스 로마사에 줄곧 등장하는 내용이자, 디오니시오스의 로마사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토지 분배 법안에 대한 부분이다. 귀족들은 절대 평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에 대한 전조는 본인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평민들은 결코 그 권한을 물려받을 수 없었다. 그 전조는 철저히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성산 사건 당시에 민중들이 귀족들에게 반발하고자 했을 때에도, 귀족들은 끝내 타협할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격하시켰고, 이어서 '군사호민관'이라는 새로운 직함마저 만들게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엄연히 호민관이라는 직함은 신에게 부여받은 전조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토지 분배와 관련된 사건이 터졌을 때 호민관들은 귀족 원로원 측에게 본인들도 엄밀히 신의 전조를 부여받았다고 연설했던 것이다.

비코에 따르면, 이러한 귀족의 자유는 푸블릴리우스 법이 생길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해 푸블릴리우스 필로가 '인민 집정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어 페텔리아 법과 함께 귀족의 자유는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토지 분배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추적해 보아야 한다. 디오니시오스의 『로마사』를 보면 어떤 평민이 귀족들에게 무수한 채찍을 맞고 더는 못 견뎌 연단 위로 올라가 민중들에게 상처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귀족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평민들이 이자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자에 대한 핵심이 부각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자가 철저히 '착취'로 설명된다. 귀족들이 일정 부분 이상을 거두어 갔던 것이다. 평민들의 사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귀족들은 마구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서 평민들은 귀족들에게 큰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비코가 설명한 이론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된다. 평민들은 언제나 외국인처럼 취급되었고, 외지인처럼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귀족들은 평민들을 합법적 노예로 보았다. 그래서 평민들은 제대로 된 혼례를 치를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정식 혼례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귀족들이 그토록 가이우스 카눌레이우스가 제시한 통혼법에 적극 반대했던 것이다.

비코는 시적 경제학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중세 시대의 차지권과 같다. 따라서 임대차에 대한 기본적인 방식은 '땅에 대한 임대'만이 가능했다는 부분이다. 고로, 땅의 임대차를 '영구적 계약(enfiteusi)'이라고 하며, 라틴어로 클리엔텔라(clientela)라고 부르는데, 클리엔테스는 피보호민이자 경작자를 가리키는 콜렌테스(colentes)의 동의어에 가깝다고 한다. 비코는 중세 시대를 '다시 돌아온 야만시대'라고 일컫는다. 즉 인간의 이성이 극에 달해 야만시대가 다시 돌아왔다고 불렀다. 그래서 중세의 고문서에는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집과 밭에 대한 임대차 계약만 존재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는 토지가 곧 '봉토'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디오니시오스의 『로마사』와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휘관인 집정관은 전쟁터에서 빼앗은 땅을 함부로 소유하여 그곳으로 로마인들을 이주시키려 했다. 다름 아닌 그 이유는 토지 분배 법안과 관련된 사항이다. 그래서 민중들은 그 땅으로 가거나, 또는 거부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평민들을 위해 본인들이 소유한 넓은 토지를 절대 물려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민들은 그 토지에 대한 세를 귀족들에게 납부해야만 했다.

신에 대한 전조는 언제나 귀족들의 몫이었고, 평민들은 그 권한조차 없었다. 고대 로마 포함하여 고대 시대는 언제나 신에 대한 경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약탈적

행위는 언제나 정당화되었다. 고대 로마는 호메로스 이후로도 각 씨족들(gens)끼리 자연스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신에 대한 전조에서 비롯된 가부장권이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따라서 카밀루스를 제2의 로물루스라고 칭하는 것도 지극히 타당하다. 카밀루스는 정말로 제2의 로물루스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민중들이 베이이(veii)로 터를 옮기자고 요청했을 때, 그가 완강히 뿌리치며 이 토지에 대한 불멸을 연설했다.

이것이 고대의 관습법이자 중세의 관습법이었다.

[9]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인가?

고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일 수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전제를 잘못 상정한 경우가 되며, 모든 이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면에서 비로소 합리성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익 또는 이윤을 추구한다고 말할 때에도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하에 내려진 중차대한 결정이라고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이익 또는 이윤을 추구한다고 말할 때에는 적어도 “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바와 같이 비합리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익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은 탐욕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탐욕은 결코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합리적으로 거래를 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인간이 합리적으로 상품에 대한 교환을 할 리도 없다. 그것은 학문이 아닌, 그저 망상에 가깝다. 그리고 경제학의 현주소는 이런 망상으로 시작해서 망상으로 끝난다. 오히려 인간이 합리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야말로 기적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적을 가장한 경제학적 허상을 낱낱이 파헤치기에 앞서, 우리는 지극히 문학적이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저자는 이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작가 기무영이 집필한 역작, 『코미디(The Comedy)』의 한 구절에 깊은 빚을

지고 있다. 일찍이 본 저자는 그에게 다가가 인간 본성에 대한 본고의 문제의식을 나누며, 그의 텍스트를 논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뜻을 조심스레 구한 바 있다.

깊이 감사하게도, 작가 기무영은 이 거친 학문적 요청에 공감하며 제12곡(Canto XII)에 수록된 '로빈슨 크루소'의 일화를 본고에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더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해 주었다. 귀중한 지적 자산을 기꺼이 내어준 그의 연대와 승낙에 이 지면을 빌려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럽게 얻어낸 그의 문장들을 길잡이 삼아, 고립된 섬의 크루소가 보여주는 원초적인 예시를 통해 교환 행위의 비합리성을 증명해 나갈 것이다.

[10]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인가?

로빈슨 크루소는 부드러운 모래 바닥을 쥐며, 하염없이 흐느끼고 또 눈물을 처절하게 흘리고 있었다. "오, 신이시여! 하루아침에 저에게서 모든 것들을 도로 가져가신 것도 모자라, 제 영혼과 제 육체마저 도로 빼앗아가셨나이다! 이제부터 저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믿고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차라리 저도 모든 것을 빼앗긴 저 불행한 욥처럼, 그저 하느님 당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한없이 믿음을 시험받기만 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르건만! 모든 것을 잃은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을 디딜 수 있는 고향의 땅마저 빼앗겼으니, 당최 무슨 수로 이토록 거친 야만적인 곳에서 영혼과 육체를 연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느님!"

하지만 로빈슨 크루소는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태생적으로 하느님에게 부여받은 고귀한 영혼을 숙명으로 삼아, 그것을 마치 북극성을 가리키는 명료한 나침반처럼 삶의 길잡이로 여기기 시작했다. 로빈슨 크루소는 당장 불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왜냐하면 흠뻑 젖어버린 자신의 몸뚱어리를 어서 열기로 덥혀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획득한 도시의 지식을 통해, 그리고 문명의 혜택—화약, 양초, 램프—을 빌려와 금세 불을 피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로빈슨 크루소는 무의식적으로 답습한 문명의 혜택을 이용하여, 작살을 뚝딱 만들었다. 분명,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문명의 혜택과 체력을 어느 정도 상기하며, 조잡하게나마 물고기를 두 마리 낚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득 그의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물고기를 고작 두 마리씩 낚지 말고, 한 번에 30마리를 포획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는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자마자 곧장 실행에 착수했다.

먼저, 그는 30마리를 한 번에 포획할 수 있는 그물망을 만들었다. 역시나, 그는 문명의 지식과 혜택을 이용하여 무의식과 의식을 교대로 답습했기에, 어렵지 않게 그것을 뚝딱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이 중에서 두 마리만 제외하고, 나머지 28마리는 비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비축한 물고기가 곧 싱싱함을 잃는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자신의 계획을 모조리 폐기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에게 기도하는 일 말고도 계속해서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 처음에 그는 분명, 30마리 물고기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과 배까지 만들었지만, 이 드넓은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던 자신에게는 아무런 *효용*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먼저 간이 오두막을 지었으며, 그다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야자수 나무를 올라가 농익은 과일 두 개를 땄다. 즉, 그의 하루 할당량은 물고기 두 마리와 열매 두 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로빈슨 크루소는 원주민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여태, 로빈슨 크루소는 이 무인도에 본인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했지만, 실은 이 광활한 무인도에도 그 말고 다른 인간이 뻔뻔하게 존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원주민 무리는 절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짜고짜 그를 사로잡아 원주민 무리를 이끄는 족장에게 데려갔다. 족장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 “매일, 우리에게 물고기 100마리를 바쳐라.” 로빈슨 크루소는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감히 혼자서 그 많은 물고기를 포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족장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그의 간곡한 설득을 기어코 못 듣는 체했다. 로빈슨 크루소는 하는 수 없이 그와 협상을 볼 수밖에 없었다. 본인을 이용할 셈이라면, 본인이 보유한 문명의 지식과 혜택이 당신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함께 작업할 인부 다섯 명을 이쪽으로 보내달라. 족장은 그의 설득을 자세히 들으며, 마지막 단 하나의 조건을 또 제시했

다. 그렇다면 노동자 다섯 명에 해당하는 임금을 따로 지불해라. 즉, 인부 한 명당 물고기 세 마리로 말이다.

로빈슨 크루소는 어렵사리 그와 협상을 하게 되어, 매일 그가 차출한 인부 다섯 명과 함께 물고기 115마리를 포획해야만 했다. 그제야 경제적인 효용의 태엽이 미끌미끌 돌아가기 시작했다. 본래 *이자*란, 우회적으로 생산하여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일정한 차액이 발생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로빈슨 크루소는 '하루아침에' 그것도 이자가 물고기 100개로 확장되어 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각 인부들에게 물고기 세 마리를 더 바쳐야만 했다.

어느 날, 족장은 그가 정말로 약속을 지켰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15마리를 바치는 광경을 보고 그의 행위 전반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심히 괘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이자를 더 추가했다. 각 인부들에게 물고기 다섯 마리 더해서, 열매 세 개로 말이다. 이렇게, 새로운 *이자율*이 탄생하게 되었다. 물고기 다섯 마리와 열매 세 개. 하지만 로빈슨 크루소는 역시, 이것이 너무 부당하며 이들 각각에게 그에 걸맞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인부를 두 명 더 추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족장은 그와 쉽게 협상하려고 들지 않았다. 인부를 두 명 더 추가할 시, 이자율이 변동되어 물고기 여섯 마리와 열매 네 개로 확장될 것을 각오하라고 단단히 일렀다. 로빈슨 크루소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족장은 그럼에도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로, 물고기 100마리에 이어서, 각 인부 다섯 명에게 물고기 다섯 마리와 열매 세 개를 꼬박꼬박 지불했다는 사실이 심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대놓고 로빈슨 크루소를 상대로 착취를 가하기 시작했다. 즉, 지금부터 로빈슨 크루소 당신이 지불해야 할 값은, 물고기 200마리에 이어서, 각 인부들에게 물고기 열 마리와 열매 일곱 개를 바치라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착취였다. 하지만 로빈슨 크루소에게 당최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암초에 부딪혀서 죽었거나,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로빈슨 크루소 일행들이 이 무인도에 발을 밟게 되었다. 로빈슨 크루소는 본격적으로 원주민 족장에게 벗어날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일행들에게 최대한의 지식을 전수하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가르쳤다. 일행들은 모두 문명의 지식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경제적인 효용을 마음껏 발할 수 있었다. 먼저, 땅의 경계를 기점으로 나무 목책을 동그랗게 지었다. 이들은 야자수 열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땅바닥을 파서 우물을 확보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물고기 300마리를 포획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300마리 포획한 물고기를 잘 비축하여 가급적 싱싱함을 보존하기도 했다.

그렇게 되자, 원주민 무리 포함하여 족장은 그들의 뜬금없는 등장에 심히 당황함을 표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는 큰 다짐 하에, 그들과 전쟁을 치르기로 맹세했다. 그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무사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렸다. 마찬가지로, 현재 원주민 무리들이 곧 이곳으로 침입할 것 같은 정보와 낌새를 눈치챈 나머지 일행들 또한, 하느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필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물을 바치는 시늉을 했다.

해가 점차 지평선을 뚫고 위로 솟아오던 시점에, 원주민 무리와 크루소 일행은 각자 진을 친 장소에서 서로를 마주하며 용맹히 달려가기 시작했다. 원주민 무리는 조잡하게 뛰어가기 바빴던 반면, 크루소 일행은 나름 진형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이동했다. 원주민 무리가 동그랗게 에워싸서 포위에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절대 제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크루소 일행 사이에, 크루소가 몰래 숨을 죽이며, 그 틈에 족장 이마에 정확히 총구를 꽂아넣었다. 그렇게 원주민 무리를 이끄는 참주가 땅바닥에 풀썩 쓰러지고 만 것이다. 무리는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치기 바빴다. 크루소 일행은 한 명 한 명 열심히 추격하며 이들을 죽이거나, 모조리 포획하여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크루소 일행은 이곳에 승리의 기념비를 꽂았다.

그리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즉, 비록 원주민 무리 너희들이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신을 섬겼을지라도, 우리는 문명의 지식과 혜택에 힘입어 너희들을 함부로 처단하지 않으며, 존중하게 취급하여 매일 성실하게 우리들을 위해 노동을 하라! 라고 자연법을 새겨넣었다. 크루소 일행은 이 무인도 전체 땅을 점유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12표법을 제정했다. 그중, 원주민 무리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은 이러했다. 이들은 매일 물고기 100마리를 크루소 일행에게 바쳐야 하며, 이자율은 물고기 세 마리와 열매 두 개로 준거하여, 그것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도록 명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나'는 입을 틀어막으며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는 나의 행동 따위 당당히 무시하며, 단테 알리기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자극적인 스토리라면 구독자 수는 물론, 조회수까지 크게 뛰어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것이야말로 상품이며, 자본이며, 이자입니다!"

[11]　이자의 본질

이자란, ‘타인과 타인의 접촉’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다. 그리고 이자가 잉태되는 그 시작점 역시 타인과 타인의 접촉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다. 고로,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이자란 마치 자연스러운 시간의 계기(繼起)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는 것과는 큰 괴리감을 보인다. 필히 타인과 타인의 접촉에서 비롯되는 모든 ‘인과(因果)’를 이자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자를 단순히 물질적인 재화로 통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자는 타인과 타인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과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추상적인 재화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추상적인 재화의 모든 인과는 인간의 기본적인 근원성에서 파생하는 성욕과 불안, 그리고 죄성에 다름 아니다. 타인과 타인이 접촉하는 그 순간 발생하는 모든 심정적 작용을 곧 ‘이자의 본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크루소는 혼자서 물고기 30마리를 포획할 이유도 없었고, 혼자서 열매 수십 개를 따먹을 이유도 없었으며, 그저 원주민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무릎을 꿇고 하느님에게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행동조차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징하는 ‘이자’의 핵심은 크루소가 무릎을 꿇고 하느님에게 기도드리는 행위 자체로 표현된다. 그는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며 심정적 작용과 함께 이자를 잉태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추상적인 재화로만 기능할 수밖에 없으며, 비로소 그 무인도의 토착민과 대면하게 되자 물질적인 재화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4권 62장에서 이를 ‘부당함’이라고 정의했다. 즉 타인의 실존적인 재화를 물리적으로 탐하는 단계를 넘어, 추상적으로 재화의 존재성을 파악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부당함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꼭 부당함이 먼저 개입될 이유는 없으며 단지 추상적인 재화의 존재와 관련된 본인의 심정적 작용에서 비롯되는 모든 인과를 ‘이자’라고 총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하는 추상적인 재화의 ‘낯섦’은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그 추상적인 재화를 이해할 수 있는 명석한 분별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관망하면 헨리 조지가 정의한 이자의 본질은 그 자체로 그릇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자의 본질은 자연이 스스로 창조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만, 헨리 조지의 한계는 그러한 본질이 인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인간은 전혀 다른 기제로 이자를 잉태시킨다. 그리고 그 이자란 성욕-불안-죄성이라는 선험적 관계도에 기인하는 근원성에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타인과 타인이 접촉하는 그 순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필히 '부당함'만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당함'도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원주민들이 '낯섦'을 낙관적으로 이해했다면 크루소가 착취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파생하는 이자의 개념은 '긍정'이 된다. 마찬가지로, '낯섦'을 명석히 분별하는 타인과 타인이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본인을 지속적으로 마찰하는 부당함의 근원을 정당함으로 치환하고자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교우를 쌓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낯섦'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 추상적인 재화를 부당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착취가 결국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크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토머스 홉스의 이론을 논박하기 위해 원시적인 인간의 존재성을 '연민'으로 정의한 것도 적절히 타당한 법이다. 하지만 루소는 지나치게 근대적인 시각에서 사태를 분별했는데, 이를 가장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반증은 고대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폴리비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사르디스 요새에 갇힌 셀레우코스 왕가의 반란자 아카이오스를 구출하기 위하여 소시비오스의 청탁으로 고용된 크레타인 볼리스는, 안티오코스 3세 진영과의 거래를 통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아카이오스를 단번에 배신했다. 이후, 아카이오스가 밧줄에 묶인 채 처참한 몰골의 포로로 안티오코스 3세의 발밑에 내던져지자, 그는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변덕을 바라보며 큰 충격에 휩싸인 나머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다시 크루소와 원주민 무리를 이끄는 족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자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자의 총체는 물질적인 재화의 잉태를 포함한 추상적인 재화의 잉태와 관련된 모든 '인과'에서 비롯된다. 타인과 타인이 마주하지 않으면 그 이자의 추상성은 각 개인의 고유한 심정적 작용에서 기인한 마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인간은 필히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며,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추상

성이 또 다른 타인과 마주하는 즉시, 실재하는 객관성으로 잉태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호명하는 '이자'의 물리적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자'를 제대로 정의하려면 적어도 타인과 타인의 관계에서 비롯된 필연성을 특별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름 아닌, 모든 물리적 이자의 탄생은 타인과 타인의 관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2] 고대 약탈에 대한 재검토

고로, 고대에서 횡행하던 약탈은 가부장들의 합법적인 실소유에 대한 권한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터에 발을 들여 도적질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열등감이 크게 자리 잡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현대적인 개념이 아닌, 이들이 생각하는 열등감이란 곧 '수치심'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발전된 관습법이 이들을 더욱 억누르도록 부추겼다. 이는 법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겸양이 점점 향상되고 동시에 야만적인 속성이 많이 무뎌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호메로스 이후로 타락한 시대를 기준으로는 그 양상도 많이 달라진 것이다.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물었던 질문을 스스로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그는 솔론에게 재차 부추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본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자인하도록 유도했다. 클레오메네스 1세가 아리스타고라스에게 뇌물을 받을 뻔했지만, 딸 고르고에 의해 수치심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델포이의 무녀를 매수하여 공동 통치자 데마라토스를 폐위시켰는데, 이는 위에서 우리가 검토했던 성욕-불안-죄성이 특정 상황에서 결탁하여 자신의 본성을 이기지 못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는 열등감이 아니라, 실은 완전히 다른 양상에 속한다. 그리고 그 양상이란 수치심의 다른 말이 아니다. 반면 리산드로스는 수치심을 좀체 보이지 않았기에, 플루타르코스는 그를 가리켜 스파르타 타락의 계기를 설명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밀티아데스는 수치심을 보이지 않은 채 당당히 행동했기에 헤로도토스는 그를 가리켜 비판의 어조로 계속 서술을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헤로도토스는 신에 대한 경건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프 슘페터는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피상적인 관찰만을 내놓은 채 고대의 엄밀한 신적인 전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고대 시대는 신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시대였다. 고로, 당시에는 경제학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놓을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본적인 뼈대는 토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토지의 실소유주는 신의 전조를 받은 귀족들이었고, 언제나 그 땅을 빌려 쓰는 존재들은 외국인인 노예들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신에 대한 전조가 우선이었다. 여기서 경제학자들의 맹목적인 지점을 짚을 수 있다. 정치학은 독립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는 학문은 바로 정치고, 인간은 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로부터 좋은 정치가 탄생할 수 있다고 여겼다. 플라톤 역시 정치학을 높은 학문으로 취급했기에, 『국가』에서 철인 정치를 주장했던 것이다.

반면 경제학은 고대 시대부터 따로 발전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경제'란 곧 약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메로스 이후부터는 그것이 타락으로 변질되었을 뿐이다. 당시에는 경제 문제를 약탈로 해결했다. 인구수가 늘어나면 이주를 시키거나, 식량이 부족하면 타국과 교섭하여 사들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타국을 정복하여 귀족의 권한으로서 당당히 소유하려고 했다. 그래서 경제학은 독립적으로 발전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많은 사실을 시사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우울증에 걸릴 이유도 전혀 없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현대전에서 비롯된 결과다. 왜냐하면 현대전은 땅을 물리적으로 빼앗을 수도 없으며, 약탈할 식량이나 그 밖의 재물조차 없으며, 신에 대한 전조를 적극 받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병사들이 타국의 땅을 침범하여 약탈하는 것을 제일로 두었다. 고대 사료를 살펴보면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재물욕을 계속 통제하려고 했다. 여기서 지휘관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은 병사들의 재물욕을 함부로 가로막지 않았다. 그렇게 행동할 시 필히 반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땅을 정복하고 약탈물을 병사들에게 일정 부분만큼 분배한 다음, 나머지 일정한 부분은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로 제했다.

[13] 중농주의와 고전학파의 관점

한 가지 사실은 자명하다. 경제학이 어째서 독립된 학문으로 전혀 발전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고대부터 근대까지 경제는 곧 약탈로 해석되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혀 적용할 이유도 가치도 없었다. 왜냐하면 중농주의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약탈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농주의자와 고전 경제학자들의 관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이들은 본래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두 번째, 이들의 사상은 모두 토지부터 시작했다. 즉 경제학이 이토록 근본도 없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인류의 긴 역사를 거쳐, 경제는 언제나 약탈이었던 이유다.

그리고 이들의 통찰력은 많은 부분에서 거의 어긋나지 않았다. 다만, 원인과 결과를 혼동했을 뿐이다. 고로, 경제학이 여전히 단어 하나를 제대로 명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던 시기는 중농주의자부터 해당되는데, 보통 프랑수아 케네의 『경제표』를 그 시작점으로 둔다. 그리고 튀르고와 캉티용은 경제학의 선구자로서 대표된다. 이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약탈이 여전히 빈번했기에, 당연히 경제학도 그에 발맞춰 행동을 같이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경제학은 '봉토'라는 개념에 머무른다. 즉 토지를 관리하는 영주가 있으며 그 밑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또는 노예들이 마치 예속민처럼 다루어져 왔다. 결국 이들이 생각하는 그 발상이라는 것도 크세노폰의 『오이코노미쿠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제라는 전반적인 현상이 약탈로 시작한 만큼, 당연히 그 본성도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조금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튀르고와 캉티용은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인간의 약탈적인 본성을 헤아려 이자율을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자율은 곧 토지의 관리자인 영주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들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경제학의 실체였다. 이것이 경제학의 출발점이자 실상 경제학의 전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경제학이 점차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당시 유럽 열강들의 치열한 약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당시로 거슬러 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쟁과 함께 자본이 증식되어 사업가와 자본가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베르너 좀바르트는 『전쟁과 자본주의』에서

전쟁이 어떻게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는지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격화·표준화가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군복과 섬유 산업, 군량미와 유통, 무기와 제철업, 그리고 국채와 은행 등 더 이상 경제는 약탈로 설명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복잡한 계산 장치가 필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학은 독립적으로 발전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경제학은 여전히 '경제학자'라는 존재들이 아닌, 여태 다른 학문을 연구하던 존재들이 다소 엘리트적인 시각으로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상인 또는 사업가들이 본능적으로 체득하는 경제 현상과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에는 심각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토지에서 벗어나 상업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학자들은 여전히 토지에서 그 가치를 재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농주의자와 고전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만큼 경제의 본성을 명확하게 짚은 자들도 없으며, 경제학을 하나의 학문이 아닌 총체적인 학문으로 취급했고, 이들의 주장은 많은 부분에서 다시 본능으로 귀화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단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채 단 한 가지에만 주제를 고착시키려 고집했다. 그리고 뵘바베르크가 짚었듯, 바로 그 한 가지 주제란 생산·이용·금욕·노동·착취라는 다섯으로 구분된다.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중농주의를 거쳐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어 왔다. 고로, 뵘바베르크는 그 본질을 전혀 잘못 짚었다. 사실 이들이 주장했던 생산·이용·금욕·노동·착취는 당시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정확한 이론이자, 경제의 본질을 설명하는 합당한 방식이었다. 즉 다섯 가지 구분은 모두 같은 얼굴이자 실은 다른 양상이었던 셈이다. 마치 스피노자가 주장한 '실체'처럼 말이다.

[14] 가격과 가치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격과 가치는 언제나 약탈로서 해석되어 그 대상은 명백한 독점으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흔히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곡선과 효용 곡선에 대해 우리가 의식하더라도 본질은 언제나 독점 말고는 그 어떤 해석도 낳지 못한다. 이것은 여타 다른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은폐하고 싶었던 본질이다. 알프레드 마셜도 『경제학 원리』에서 독점론에 대해 주장을 펼친 바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언제나 독점론만큼은 조심스럽게 주장하려고 해 왔음을 본다면 말이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현대의 경제학을 설명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잠시 그 본질에 대한 설명만 보충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수많은 사업가들과 과거의 상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제일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란 바로 인맥 확보다. 그래서 그들은 무작정 장사부터 하지 않는다. 먼저, 어떤 조합이나 단체를 찾아가거나, 영주를 찾아가거나, 또 비슷한 동류를 찾아가며 그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법률이 곧 군주요, 그로부터 파생된 영주가 또 다른 법률로서 작용하며, 동시에 합법적 약탈 주체자로서 경제 현상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의탁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들은 본격적으로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타국을 돌아다니며 상품들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더 이어가도록 하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독점 구조를 형성하는 A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그 A를 주위로 거대한 원을 형성한다. 이것이 곧 가격과 가치가 된다. 그리고 원 안에 B와 C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여 그보다 더 작은 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B와 C는 A에 비해 한없이 원이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B와 C는 서로 치열하게 다투며 원의 가장자리라도 빼앗을 수 있게끔 경쟁할 것이다. 그러다 D가 나타나 또 다른 원을 형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B와 C와 D는 서로 경쟁하며 원의 가장자리라도 빼앗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마치 교집합처럼 생성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가격과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와 C는 A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결코 자의적으로 가격과 가치를 조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원들이 수천 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A와 흡사한 거대한 원들이 수십 개 모여 있을 것이고, 그 원들끼리도 경쟁하는 반면, 그 안에 속한 수많은 그룹들의 이름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지게 되고, 곧이어 이 그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균형'인 것이다. 그래서 일반 균형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어디까지나 현상에만 그치는 수준이며, 실제로는 치열한 전장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수많

은 기업들이 사멸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욱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 법률을 쪼개고 권한을 부여하여 마치 '파테르'처럼 신적인 전조를 부여받으려 한다. 그리고 그 성격이 곧 법인(法人)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는 디오니시오스와 폴리비오스가 당연히 제기했던 질문처럼, 로마가 지중해 패권국이 된 결과를 단지 우연에 기대어 설명하지 않으려고 시도했던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이들은 어째서 로마가 지중해 패권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원과 뿌리를 추적했던 것이다. 그리고 폴리비오스가 놀랐던 것처럼, 로마의 정치와 견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발전하여 그 어떤 곳에서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튼튼한 구조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바로 그 튼튼한 구조라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로마는 그들 목에 칼을 겨누며 수백 년 동안 피의 역사를 써 내려갔던 것이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곡선 그래프에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수많은 원의 구조와 그들끼리 발생하는 교집합의 치밀한 땅따먹기가 바로 가격과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허무한 개념은 바로 이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

[15] 약탈의 세탁화, 첫 번째

약탈은 언제나 정당한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 호메로스 이전에는 신에 대한 경건함에 의해, 호메로스 이후에는 신에 대한 경건함이라는 이름 아래. 하지만 이것을 더욱 세분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 점차 발전할수록 이 정당화가 아주 미묘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넘어 인도 히파시스 강 부근까지 점령했을 때 이미 세상은 신이라는 이름이 퇴화해 버렸다. 응당 명분만 남은 상태였으며,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것을 정치적인 명분으로 이용했다. 로도스의 아폴로니오스는 더 이상 호메로스의 장엄한 운율을 노래할 수 없음을 탄식했다. 그래서 그는 내면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

지로, 비극에 적합했고 실제 인물이나 그 밖의 영웅의 미덕을 노래했던 사티로스극은 후기에 이르러 가공 인물을 다루게 되었으며 희극에 더욱 가까운 형식이 되었다. 이처럼, 시대가 점진적으로 나아갈수록 신에 대한 경건함이 그저 명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정확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기점으로 한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요인으로 지중해 전역이 서로를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디오도로스 시켈루스의 『역사 총서』 16권부터 20권까지 그 적나라한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지중해 전역이 서로의 땅을 약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리적인 요인들이 서로 얽히며 더 이상 서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그리스와 일리리아, 트라키아 일대를 점차 장악해 가던 동일한 시점에, 시라쿠사섬에서는 디온이 디오니시오스 2세를 몰아내기 위해 민중들을 설득하고 있었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는 이집트 나일강 하구를 침범하고 있었다.

지리적인 요인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경제학자들도 바로 이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의 타락성은 곧 경제와 직결된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약탈이 조금 더 미묘하게 변하여 상황에 대한 복잡성도 커진다. 즉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 마치 두 회사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급기야 두 국가가 서로를 인지하는 상태로 접어들어 고도의 정치공학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했다. 그래서 일리리아 여왕이었던 테우타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로마 사절단 두 명을 살해했는데, 바로 그 점에 의해 로마는 약탈의 명분을 얻고 그녀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 약탈을 합법적으로 세탁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타국들은 시간을 감내하며 서로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견제를 각기 도맡아야만 했다. 폴리비오스는 이 점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역사를 집필하려던 본 목적이 바로 거대한 인과가 어떻게 서로 맞물리며 결국 하나로 수렴하게 되는지 보고자 함이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탁월한 시선을 갖추고 역사를 조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를 관찰하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세는 주권이 파편화되어 영주들이 면책권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군주에 버금가는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겉으로만 바라보면 곧장 그 좁은 봉토를 침범하여 함락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관계망이 뒤에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함락시키는 것은 버거울뿐더러, 인근 영지의 영주들이 급히 고용한 용병들을 데리고 올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하여

그 견고한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체사레 보르자는 로마냐 지방부터 시작하여 우르비노와 카메리노를 거쳐, 나폴리 왕국 인근까지 장악했으나 정작 적들은 그와 치열하게 싸워 보지도 않고 거진 항복을 요청했다. 마키아벨리는 유독 그의 점령 과정을 두고 탁월하게 칭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상 체사레 보르자는 아무것도 점령한 곳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점령한 공화국들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위중한 병에 걸려 침상에 눕게 되었을 때 서로 눈치를 보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다지고 있었다. 체사레 보르자는 정확한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만을 내세우며 임시적으로 그들을 속이는 데에 집중했다. 당시 두 강국이었던 프랑스와 스페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약탈의 합법적인 명분을 주었기에, 이탈리아반도 내 각 공화국들은 조금도 신의를 내보일 필요가 없었다. 정말로 체사레 보르자가 점령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은 필히, 디온이나 티몰레온처럼 행동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은 합법적인 약탈을 민중들의 동의하에 함께 진행했기에 죽어서도 영원히 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로,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 서로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면, 필히 약탈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온갖 법률과 조항들이 나돌아다니게 될 것임은 지극히 자명하다.

[16] 약탈의 세탁화, 두 번째

그렇다면 로마는 어떻게 지중해 패권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로마는 항시 신의 전조라는 이름 아래 약탈을 정당화했다. 그래서 로마는 언제나 명분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이들이 그토록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고대부터 시작된 선조들의 경건함 덕분인데, 그 시작점은 다름 아닌 로물루스가 최초로 피난처에 이름도 없는 야만인들을 데려와 가부장들로 구성된 원로들이 땅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자신들의 질서 속에 편입시켰다. 지휘관이자 집정관인 가부장들은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새점이나 신탁을 보면서 항상 신에 대한 전조를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었

다. 이는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귀족들뿐만 아니라 외지인인 평민들도 그 중요성을 심히 절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키케로가 주장했던 것처럼, 또는 플루타르코스의 『피로스전』에서 키네아스가 피로스에게 건넸던 말처럼, 로마는 실상 두 명의 왕이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는 형태이자 귀족 원로들 모두가 왕처럼 행동하고 다녔던 것이다. 로마가 패권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시작점에서 비롯된 신의 전조 덕분이다. 그리고 로마는 이탈리아반도 내 지리적인 요인과 평민들의 토지 분배 법안과 관련하여 수백 년 동안 계속 다투어 왔기 때문에 피로스가 침략했을 때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로마가 지중해 패권국이 되었던 이유를 오랜 시간 동안 귀족과 평민이 끊임없이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오인하고 말았다. 아니, 분명 그는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정확히 지적할 수 없었다. 로마는 항상 신과 함께해 왔다. 바로 여기서 신에 대한 명분이 발생했다. 그는 툴루스 호스틸리우스와 메티우스 푸페티우스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전투를 고작 병사 몇 명을 맞붙여 결투를 벌이게 하는 과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툴루스가 신적인 명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교활하게 이용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밑져야 본전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툴루스는 미리 메티우스의 마음에 명분을 심기고 혹여나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약탈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일찍이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툴루스는 알바 롱가를 합법적으로 파괴한 것도 모자라, 배신한 메티우스를 합법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되었으며, 알바 롱가의 민중들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니발은 로마가 합법적인 약탈권을 획득하기 전에, 일찍이 사군툼을 정복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로마의 합법적인 약탈권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와는 달리 카르타고 본국은 로마처럼 합법적인 약탈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 히스파니아에 배치된 하스드루발과 마고는 토착민들을 고압적으로 대했다. 가혹한 공물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병사들을 징집하고, 부족들의 충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장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인질로 잡아 두는 등 이들은 명분을 스스로 갉아먹기 바빴다.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가 신(新)카르타고를 점령했을 당시에 인질들의 몸값도 받지 않고 정중히 예우해 주며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과는 상반되게 말이다.

하지만 이는 스키피오라는 한 명의 뛰어난 지휘관이 유독 명예와 미덕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스키피오에게 말도 안 되는 덕목을 부여해 주었다. 그는 스키피오에게 입법자 리쿠르고스의 철학적인 자세를 허락했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스키피오와 한니발의 대화 장면을 통해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자마 전투를 치르기 전, 한니발이 직접 스키피오의 천막으로 들어가 그와 진중한 대화를 행했다. 한니발은 지극히 추상적으로 그를 설득하려 했고, 스키피오는 지극히 실무적으로 그를 저지하려 했다. 한니발은 그에게 운명이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설득을 시도했고, 스키피오는 로마라는 거대한 구조로 저지를 시도했다. 즉 전자는 운명의 수호자가 되고 후자는 구조의 수호자가 된다. 그래서 스키피오에게 입법자 리쿠르고스의 철학적인 자세까지 부여해 줄 수는 없다. 그는 단지 로마라는 신성한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을 뿐이다.

고로, 로마는 약탈에 대한 명분을 신에 대한 전조로 해석했으며, 그것을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을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 응당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을 많이 관찰했을 것이다. 툴루스가 페티알레스(fetiales)라는 직책을 만들어 전쟁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부여해 주었다. 왜냐하면 가부장들이 이것을 곧 신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 페티알레스가 적국의 국경 너머로 피 묻은 창(Hasta Sanguinea)을 내던져 적의 땅에 꽂히는 즉시 신의 이름 아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포고했던 것이다.

[17]　약탈의 세탁화, 세 번째

이렇듯, 지리적인 요인이 극단에 다다르면, 마치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그 상황을 한번에 해결하는 합법적 약탈자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신에게 선택받은 목동(牧童)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신은 항상 우리 편이고,

신은 우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곧 '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중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아마 문헌학적인 기록의 절반은 거짓일 것이나,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진실일 것이다.

퀸투스 세르토리우스는 이것을 정치의 공학적 전술로 삼았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는 인간의 법이 점차 자리 잡으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던 시기였음에도 말이다. 그는 흰 사슴이 여신 아르테미스의 전령이라고 주장하며 히스파니아 토착민들을 속였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습관에 힘입어 매일 아침 카피톨리움 언덕에 자리한 유피테르 신전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전조라고 해석하게 되었고, 본인도 그 사실이 나름 나쁘지 않은지 그것을 빌미로 군의 사기를 더욱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는 행운의 여신 베누스의 총애를 받는다고 진심으로 믿었으며 스스로를 펠릭스(Felix)라고 칭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치르기 전 하늘에서 장엄한 계시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피에르 바르텔레미는 안티오크 공성전 당시, '롱기누스의 창'을 발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앞세워 이슬람 대군을 패주하게 만들었다. 잔 다르크는 성 미카엘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프랑스군의 사기를 높였다.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했을 당시, 스스로를 '카이사르'라고 칭함으로써 그 혈통을 이어받으려 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토대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개명했으며 카이사르를 따르던 군단병들의 충성을 이끌어 냈다.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그와 무관한 카이사르의 혈통을 이어받고자,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로 덧씌웠다. 황제 네로가 자살한 이후 혈통이 완전히 끊어졌음에도 갈바는 스스로를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 갈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오토는 '마르쿠스 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비텔리우스는 '아울루스 비텔리우스 게르마니쿠스 아우구스투스'로, 베스파시아누스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로 혈통을 이어받았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는 자신을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루키우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페르티낙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했다. 세베루스 사후, 그의 아들 카라칼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핏줄임을 자처하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로 이름을 바꾸었고, 시리아의 태양신 사제였던 엘라가발루스 역시 자신이 카라칼라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며 똑같이 그 고귀한 이름을 참칭했다. 거듭된 내전을 종식시킨 군인 출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인간의 혈통을 넘어 스스로를 유피테르 신의 피를 이은 '요비우스'라 선포하며 신성한 통치자로서의 족보를 확립했다. 마케도니아 왕조를

연 바실리오스 1세는 비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주군을 암살하고 제위를 찬탈한 피 묻은 손을 숨기고자, 자신을 고대 아르메니아의 아르사케스 왕조와 알렉산드로스 대왕,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1세의 직계 후손으로 둔갑시킨 가짜 족보를 편찬하게 했다. 제4차 십자군으로 제국이 갈가리 찢겼을 때, 폰토스 지역으로 도망쳐 나라를 세운 트레비존드 제국의 군주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인이 바뀌는 와중에도 자신들이야말로 참된 로마의 핏줄이라며 '메가스 콤네노스'라는 과시적인 칭호를 끝까지 고집했다. 비단 제국의 내부뿐만 아니라, 제국의 권위를 훔치려 했던 주변의 이민족들조차 이 합법적 약탈의 명분을 적극적으로 모방했다. 프랑크족의 카롤루스 대제는 교황의 왕관을 빌려 스스로를 '로마인들의 황제'라 칭하며 야만족의 피에 단절된 제국의 명분을 강제로 주입했다. 발칸의 패권을 쥐었던 불가리아의 시메온 1세는 동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야욕 아래 자신을 '불가리아인과 로마인의 차르'라 선포했고, 훗날 세르비아의 스테판 두샨 역시 영토를 확장하자마자 주저 없이 스스로를 '세르비아인과 로마인의 황제'로 격상시켰다.

신성 로마 제국의 영광을 독점하려 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1세는 어용 학자들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가문이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물론이요,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 심지어 성경 속 노아에까지 맞닿아 있다는 가짜 족보를 편찬하게 했다. 장미 전쟁의 피바람을 뚫고 왕좌를 찬탈한 잉글랜드의 헨리 7세는 자신이 전설 속 아서 왕과 켈트족 군주 카드왈라드르의 직계 후손임을 자처하며 아예 장남의 이름조차 '아서'로 지었고, 이를 통해 쿠데타로 얼룩진 튜더 왕조의 정통성을 신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대륙의 패권을 다투던 프랑스 왕실 역시 자신들의 조상이 트로이의 멸망에서 살아남은 헥토르의 아들 '프랑쿠스'라 주장하며 고대 문명과의 이음새를 놓지 않았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을 호령했던 스페인의 군주들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레콩키스타의 위업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핏줄을 성경 속 노아의 손자인 두발이나 고대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까지 끌어올려, 이베리아반도의 지배가 곧 신과 영웅이 점지한 태초의 섭리인 양 떠벌렸다. 부르고뉴 공국의 군주들 또한 프랑스 왕실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제국을 세우려는 야심 아래, 가문의 시조를 헤라클레스로 둔갑시키며 자신들이 발루아 왕가보다 훨씬 근본 있는 혈통임을 강변했다. 베네치아 공화국과 파도바의 지배층들은 아예 로마보다 자신들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트로이 멸망 당시 탈출한 영웅 안테노르가 자신들의 직계 조상이라는 허풍을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로 편입시켰다. 잉글랜드의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던 스코틀랜

드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스코타’가 바다를 건너와 자신들의 시조가 되었다는 건국 신화를 내세웠고, 스튜어트 왕조는 이 파라오의 핏줄이라는 명분을 통해 잉글랜드의 아서 왕 전설에 맞불을 놓았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자국 국왕의 핏줄이 노아의 손자인 마고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른바 ‘고트 기원설’을 날조해 냈고, 바사 왕조는 이를 주변국을 침략하는 팽창주의 이데올로기로 철저히 활용했다. 스웨덴에 위기감을 느낀 덴마크 역시 고대 게르만 신화의 영웅 ‘단’을 끌어들여 북유럽의 진정한 패자가 자신들임을 핏줄로 증명하려 애썼다. 동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헝가리의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왕은 고대 로마의 명문가인 코르비누스 가문은 물론이고 훈족의 왕 아틸라까지 자신의 조상으로 끌어들이며, 로마 제국의 고귀함과 유목 제국의 야성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신화를 하나의 핏줄 속에 욱여넣는 기행을 벌였다. 심지어 동유럽의 끝자락, 러시아의 이반 4세는 스스로를 ‘차르’라 칭하며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격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류리크 왕조 시조가 다름 아닌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형제 ‘프루스’라는 당돌한 신화를 창조해 냈다.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귀족들조차 예외는 아니어서, 폴란드의 귀족 계급인 슐라흐타는 자신들이 일반 농민과는 씨가 다른 고대 기마 민족 ‘사르마티아인’의 후예라며 선민의식에 한껏 취해 있었다.

— 『콘스탄티누스의 기증』 위조: 8세기경 교황청 내부에서 날조된 문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교황 실베스테르 1세에게 로마 제국 서방 영토에 대한 세속적 통치권을 양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황청은 중세 내내 이 문서를 근거로 황제와 국왕들보다 교황의 권력이 우위에 있음을 주장했다.
— 『위(僞)이시도루스 교령집』 편찬: 9세기 중엽 프랑크 왕국 지역에서 조작된 가짜 문서군. 초기 교황들의 서한을 위조하여 엮은 것으로, 지역 군주나 대주교의 간섭으로부터 일반 주교들을 보호하고, 최종 재판권 및 최고 권위가 오직 교황에게만 있음을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날조되었다.
— 르네상스 교황들의 족벌주의와 가문 세탁: 15·16세기 알렉산데르 6세, 율리오 2세, 레오 10세 등은 세속 군주처럼 권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사도 전승’이라는 영적 혈통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사생아를 조카로 위장하여 추기경이나 세속 영주로 임명했다. 또한 자신들의 출신 가문을 고대 로마의 귀족 가문과 억지로 연결 지어 가문의 세속적 정통성을 높이려 했다.

[18] 약탈의 심리학

다시, 우리는 약탈자들이 왜 합법적인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지 미시적인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위에서 진행했던 성욕-불안-죄성의 다른 말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특정 상황에서 항상 발현되는 증상은 '열등감'이라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것이 전혀 아니다. 역설적으로 작위적이고 때로는 희극적인 자태를 펼쳐 보이는 광경이 역사적 혈통 조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에게 권위성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부여하기 힘들다는 지점도 금세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극적인 몸짓이 사업가와 관리자의 행동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금세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간단히 내릴 수 있다. 언제나 귀족들이 세상의 판도를 움직였고, 그들의 권력이 곧 이 세상을 존재하게끔 했을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혈통 조작에 집착할 하등의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안점으로 두는 시각은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만 의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카인이 아벨을 질투심에 미쳐서 살해한 것처럼 자신의 전(全) 존재를 타인에게 내맡긴다. 이들은 항시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위치와 비교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 평민 출신이 황제가 되고, 노예 출신이 황제가 되는 등 혈통 조작이 여태 입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작 그렇게 되어도 아무런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철학자가 황제가 되는 것은 상상력을 크게 요하는 길이지만, 평민이 황제가 되는 것은 좀체 부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다.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언급할 생각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20세기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조금 살펴보아야 한다. 조지프 슘페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이스라엘 커즈너 등 이들은 '기업가'라는 존재에게 지나친 역할을 부여했다. 마치 이들이 생각하는 기업가란,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의 칭호와 혈통을 물려받는 또

다른 존재였던 것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단 하나의 지점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는 일반인들이 쉽게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행한다. 하지만 기업가에게 그 이상의 역할까지 떠안겨 줄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기업가의 존재를 실상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의 재림(再臨)으로 인식하고도 남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이곳에서 발을 딛고 있는 우리 자신은 이들의 기업가 혁신이 얼마나 엉뚱한 발상인지 금세 인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기업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돈을 외치고, 돈의 중요성을 떠들고, 권력과 명예의 아름다움을 설파하더라도 정작 사람들은 기업가의 존재를 '신화'의 영역으로 결부 짓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한데, 기업가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경우 사람들은 즉시 그 기업가를 외면한다. 이전에는 특정 기업가를 찬양하고 우대했을지라도, 도덕적 결여로 인해 발생한 특정 잘잘못에 대해서는 맹렬히 욕설을 퍼부을 준비를 마친다. 우리는 단지 그 기업가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 그 자체만은 선망하기 때문이지, 기업가의 숭고한 정신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기업가의 인터뷰 장면을 보고 숭상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단 1930년대 미국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삼더라도 마찬가지다. 특정 기업을 바닥부터 세운 창업자의 신화와 건국 이야기는 결코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자.

그리고 혈통 조작이 꼭 정치공학에만 긴요히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약탈의 치열한 과정은 학문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활발한 열등감이 특별히 발현되는 장(場) 그 이상도 아닌 것이다. 여기서 엘리트 의식이 파생된다. 대표적인 증거로, 르네상스 지식인들은 수많은 고급 저서들을 소장했음에도 첫 부분과 몇 페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혀 읽은 적이 없었다. 이것을 간단히 '완독'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하면 제대로 책을 읽은 지식인들은 그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라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들은 장서를 장식으로 치환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과거의 문헌을 존경하여 그들과 치밀한 대화 끝에 어떤 사상이라는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사상가들도 모조리 약탈자다. 플라톤의 사상을 부정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모든 철학을 부정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존 로크의 철학을 부정했던 라이프니츠,

스피노자의 철학을 부정했던 데이비드 흄, 흄의 철학을 부정했던 칸트, 칸트의 철학을 부정했던 니체가 있는 식이다. 이들의 사상이 아무리 위대해도 결국 이전의 담론을 부수고 자신의 사상이 새롭게 들어설 자리를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행위다. 그래서 현대에는 '논문'이라는 형식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거라는 긴 사상의 낡은 족적보다 방정식 몇 개와 과학적 데이터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열등감이 발현된 결과다. 그리고 우리는 톨스토이의 뛰어난 혜안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 역사는 민중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특정 영웅이 합법적인 약탈을 자행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 될 수밖에 없다.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그토록 위대한 이유는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민중의 공동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코가 말했고, 호라티우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호메로스 서사시의 입체적인 인물을 조금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최대한 그들을 모방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결코 단 한 사람이 만든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19] 정치의 본질

그런 의미로 정치인은 '배우(Comédien)'나 다를 바 없다. 이는 정치학에 대한 주요한 심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어떤 철학자들도 이 당연시되는 심리적 기제를 전혀 해명하지 않았으며, 생각하지도 떠올리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정치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 한 가지가 필히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관전(觀戰)'이다. 하지만 이는 학문의 기본 조건이 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정치학은 철학자들의 주 논의 대상이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언제나 그들만의 '이데아'를 설정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키케로는 『아티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小) 카토의 고결함을 탄식하며 당시 로마 현실을 '로물루스의 오물통(Romuli faece)'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현실과 이상을 명확히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치학과 경제학

의 기본적인 관계마저 감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정치인이 어떻게 열등감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째서 그들이 평민과 다를 것이 없는지 깊이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정치학을 연구하는 데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한 명의 인간과 사회를 동치적인 관계로 놓고 시작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온갖 괴상한 공식들이 나돌아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인류의 긴 역사를 통틀어 외면할 수 없는 불멸의 진리는 언제나 정치인과 민중의 관계에서 관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제가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언제나 민중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감에서 민중은 자연스레 정치인에게 본인들의 주권을 넘긴다. 반대로 정치인은 민중에게서 받은 주권을 탐욕으로 사용한다. 바로 그 탐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합법화'를 구성한다. 민중들을 설득하여 본인들이 정당한 소유자이자 적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하지만 민중들은 어디까지나 기대하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란의 씨앗을 몰래 심어버린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민중과 정치인의 관계는 '계약'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민중은 언제든지 정치인을 대상으로 반란을 모의할 계략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정치인은 항상 민중을 설득해 자신의 행동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키케로가 카틸리나 탄핵 연설을 하던 당시에,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하여 계속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민중은 곧 과거의 결집체이자 신의 전조를 물려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리비오스가 현명하게 주장했듯, 정치인은 선정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선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결국 민중들을 우롱하고 임시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될 텐데, 그것이 결국 또 다른 역사의 상처로 이어져 악습이 되풀이될 뿐이다.

정치는 관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딛고 있는 땅 위에서는 이 방식으로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형이상학적인 논리는 철저히 철학자들의 몫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정치론』 1장 1절에서 과거의 철학자들이 윤리학 대신 풍자소설을, 국가학 대신 가공학을 논했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명확히 분별하자면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으로 정치를 논했을 뿐이다. 그런데 후대의 사상가들이 그것을 오인하여 철학자들의 사상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데이

비드 흄은 도덕을 감정의 영역으로 두면서 정치학을 세속의 언어로 맞바꾸려 했다. 정치의 본질은 곧 인위적인 규칙이자 그들만의 약속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여태 우리가 위에서 보아왔듯 그것은 완벽히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자연적인 관습법, 즉 신의 전조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건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약속과 규칙으로만 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계약'의 진정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은 신의 전조라는 새로운 문장(紋章)을 바탕으로 자신의 혈통을 합법화·정당화했다. 호메로스 이전에는 그 신의 전조가 실재했다면, 호메로스 이후로는 그 신의 전조가 타락하여 부재하게 되었다. 그러자 정치인은 타락한 신의 전조를 바탕으로 정치공학을 펼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도 여전히 신의 전조가 강력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테네 장군 니키아스는 월식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리고 신의 전조는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떠돌아다니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비코가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했듯, 위대한 문학은 구전과 실화를 바탕으로 집필된다고 역설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바탕으로, 아이네이스는 로마 혈통의 시초를 바탕으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비코는 단테를 두고 중세의 호메로스라고 칭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단테는 분노를 야만적으로 터뜨려 구전과 실화를 노래했기 때문이다.

고로, 민중들은 정치인이 새롭게 세탁한 신의 전조를 진심으로 믿으려 했다. 그래서 관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쉽사리 생각하는 세속의 관점이 아닌, 신의 뜻이 담긴 신성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니 데이비드 흄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는 단순히 인위적인 약속이자 규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배우'라는 의미는 타락한 신의 전조를 정치적인 관습법으로 이해하여 합법적인 혈통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민중들은 신의 전조를 진심으로 믿기 위해 정치인들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호메로스 이후로는 철저히 타락했기에 그 본질보다 정치공학이 우선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열등감'은 수치심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전조를 잃어버리는 즉시 귀족에서 이름도 없는 야만인으로 격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논했고, 소크라테스가 논했던 것처럼 이들이 민주 정치를 크게 우려했던 이유는 신의 전조의 타락성이다. 역설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신의 전조의 타락성을 크게 우려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처형되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형되기를 자처했었던 것이다. 실제 아테네 민중들은 신의 전조를 잃어 타락한 반면, 본인은 여전

히 신의 전조를 따르며 그 본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선의 목표가 바로 이를 뜻한다. 선(善)-덕(德)-중용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세속적 관점이 아닌, 신의 전조를 바탕으로 한 본질적인 관습법이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는다. 신의 전조가 언제부터 실종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동시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학의 본질로 해명이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가 본격적으로 신의 전조를 잃고 광대의 한복판으로, 그리고 민주 정치가 중우 정치로 넘어가며 관전의 콜로세움이 된 시점은 단 한 부분 말고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태 시대가 아무리 방종하고 또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신의 전조를 충실히 믿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는 나폴레옹이 황제로서 집권한 전후(前後)를 일컫는다. 나폴레옹은 본인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계승자로 칭했으며 유피테르 신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택했다. 나폴레옹은 신의 전조의 마지막 계승자였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서거한 이후로 신의 전조는 완벽하게 박살나 버렸다. 이는 전 세계가 직면했던 문제였다. 그렇다면 데이비드 흄이 지적했던 정치론, 즉 인위적인 약속과 규칙은 18·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실로 이 과도기적 시기에는 흄의 통찰이 아주 적합하기 때문이다. 신의 전조를 잃은 정치인과 민중은 서로에게 인위적인 약속을 내걸 수밖에 없었다. 당시 경제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수학적 도구에 점차 의존하기 시작했다. 베르너 좀바르트가 서술했듯, 상품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폭발적으로 횡행했기 때문인데, 쿠르노와 뒤피가 그랬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을 미시적으로 판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뒤, 카를 마르크스가 착취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차분히 그 이유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20] 정치인은 정말로 배우인가?

오스트리아 철학자 오토 바이닝거는 『성과 성격』에서 이들을 '행동하는 남성'이라고 통칭했다. 그는 '천재성'의 개념을 확고히 구분하기를 원했는데, '행동하는 남성'과 '학문하는 남

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예술가와 철학자 그리고 종교 창시자 세 명에게 배타적인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의 통찰력은 결코 그릇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행동하는 남성을 두고 오로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를 위해 죽는다고 주장했다. 즉 예술가와 철학자는 시간에 종속되지 않은 채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는 반면, 행동하는 남성은 외적인 측면에만 한없이 굴러다니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최대한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그래서 행동하는 남성에 대한 기록은 그저 역사가 전할 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다시 파괴하기 위함이다. 이는 테오도르 몸젠이 『로마사』를 엄격하게 기록하며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지나친 가치를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 비코가 본인의 저서에서 줄곧 학자들의 오만함을 비판했듯이, 테오도르 몸젠은 당시 혁명에 실패한 독일의 민주적인 위상을 위해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맞게 재단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통찰하면 오토 바이닝거의 관점도 조금은 재고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각 영웅들은 모두 행동하는 남성의 표본이 되는데, 실제로 고대 시대는 언제나 신의 전조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민중 고유의 관습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동하는 남성들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천재성은 명백히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예술가와 철학자의 몫으로 두어야 마땅하다.

고로, 이것을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면 각 시대가 가리키는 관습법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카밀루스가 어째서 제2의 로물루스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카밀루스의 통치 전략보다 신의 전조로 말미암은 민중 고유의 관습법이 그것을 완벽히 뒷받침해 주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행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민중 고유의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언제나 민중 고유의 관습법을 바탕으로 통치 전략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중 고유의 관습법은 그 자체로 영원하다.

[21] 민중은 무엇을 바라고 정치인에게 의탁하는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들이 바라보는 정치인이란 언제나 '구원자' 내지 '해방자'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구원자란 언제나 신과 비슷한 위상을 지니는 법이며, 시대의 타락과 함께 세계가 발을 맞추면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며 '신의 자식'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황제가 되고, 군주가 되며, 때로는 신의 대리인인 중보자가 된다. 하지만 민중들은 이들에게 그 이상의 권한을 감히 넘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인과 민중은 '계약'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 민중으로 하여금 실망감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계약 관계의 반대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고, 보통 이를 '가족'이라고 부른다. 철학자 존 로크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계약 관계와 동일하게 두었는데, 이는 결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계약 관계와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자세히 논할 부분이 못 된다.

[22] 경제학의 진정한 본질

경제학은 어째서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할 수 없었으며, 여전히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에도 쉽사리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품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일어나던 당시, 즉 로마의 마지막 계승자였던 나폴레옹이 작고한 뒤부터 경제학은 그 본질이었던 학문의 총체성을 잃어버리고 개별적인 수요와 공급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다. 이는 반대로 추적을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도출한다. 여태 경제학은 약탈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발전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학자들도, 민중들도, 병사들도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고전학파 당시까지는 경제학이 단 하나로 환원되지 않고 모든 학문의 다리 역할을 자처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경제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상품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경제학은 독립적으로 발전될 이유가 마땅히 존재했다. 단어의 오용을 시급히 막아야 했다.

고로, 경제학의 진정한 본질은 단 하나로 귀결된다. 경제학은 민중 고유의 총체성이다. 즉 민중 전체가 경제학으로 대변된다. 그래서 경제학은 언제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밝혀져야만 했고, 다르게 증명되어야 했고,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뵘바베르크가 주장한 생산·이용·금욕·노동·착취라는 다섯 가지는 모두 18세기에서 20세기 당시에 적용되는 민중 모두의 총체였다. 그래서 경제학이 여태 단 하나의 답변으로 설명될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시대에 따라, 민중의 동의에 따라, 고유의 관습에 따라 항시 달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마치 호메로스의 서사시처럼 오랜 시간 동안 증명이 되어야 마땅한 민중 고유의 총체성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학은 민중에서 시작하고, 민중으로 귀결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전히 학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그 어떤 의견조차 조율되지 못하는 것이다.

슘페터는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마르크스를 예언자의 위치로 두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신의 전조를 잃어버린 시대에서 신의 언어로 노래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코가 단테를 두고 중세의 호메로스라고 지칭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법이란 각 사회와 국가, 지역의 관습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것과 같이, 경제도 바로 이 맥락에서 비로소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관습법'을 일컫는다. 이는 로마 법학자 울피아누스가 만민법을 일종의 관습법으로 두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만민법을 보편적 관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보편적 관습은 민중 고유의 총체성이다. 그럼 여기서 정치와 법이 어떻게 경제와 다른지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치와 법은 언제나 모든 학문의 최선이다. 그래서 경제도 정치 안에 포괄된다. 즉 정치와 법은 민중 고유의 관습법을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선택의 과정이다. 그래서 정치와 법은 필히 선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반면 경제는 그 자체로 민중 고유의 관습법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암묵적인 합의도, 동의도, 허가도 필요 없는 셈이다. 우리 모두가 동시에 경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세노폰은 본능적으로 경제를 '가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다. 오이코노미아(οἰκονομία), 즉 오이코스(οἶκος)는 가정을, 노모스(νόμος)는 관리 내지 관습을 일컫는다. 그 당시에 경제적 의미의 보편적 관습은 오이코스였다.

그래서 경제학의 저서를 연구하면 그 시대의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저서가 가리키는 방향이 당시를 완벽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

히 쿠르노와 뒤피로 넘어가던 시점부터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다 상품의 규격화와 표준화와 함께 공장이 설립되고 자본가가 토지 위에서 마치 영주처럼 군림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하자, 시스몽디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을 버리고 국가 개입을 주장했다. 이는 마르크스로 동시에 연결된다. 당대 민중 고유의 총체성은 이들의 저서로 완벽히 대변된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토지에 대한 투기로 인해 그 폐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23]　약탈의 지리심리학

이제 신의 전조를 잃어버린 시대에서 약탈이 어떻게 미묘하게 변질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차례다. 19세기에 이르러 약탈은 조잡하게 성문화된 법과 조항, 그리고 조야하게 구성된 계약서들이 대신 자리 잡게 되었다. 왜냐하면 신의 전조를 잃어버린 세대에서, 신의 전조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치인들과 선동자들이 신의 전조가 당최 무엇인지 모르는 민중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게 조잡하고 또 조야했던 것이다.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세 가지로 시대적 증상을 나열했다. 전통지향형, 내부지향형, 타인지향형. 하지만 리스먼은 전통지향형을 결코 나폴레옹 이전으로 두지 않았다. 그는 전통지향형의 정체를 도통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세 가지 도표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정이 이렇다면 전통지향형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셈이 된다. 18세기부터 공장제 규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말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엄정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당시 유럽이 나폴레옹에게 그토록 찬탄을 보냈던 이유도 단 하나로 귀결된다. 신의 전조의 복권이었다. 이는 스탕달이 『적과 흑』에서, 『파르마의 수도원』에서 건조한 문체로 나폴레옹의 신성함을 자세히 서술했는데, 당시 유럽이 나폴레옹을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폴리비오스가 『역사』에서 주장했듯, 한 사람의 천재성이 세상의 운명을 뒤바꾼다는 통찰이

더는 적용될 수 없는 시대였다. 그 틈에, 상품의 규격화와 표준화에 맞춰 자본가와 신흥 부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는 베르너 좀바르트가 『사치와 자본주의』에서 아주 자세히 기술했던 부분인데, 귀족들이 점차 몰락하기 시작하고 신흥 부자들이 '자본으로' 그들의 자녀와 결혼하거나 또는 그들의 자식이 귀족들의 자녀와 결혼하는 등 운명이 하나의 거대한 수렴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대니얼 디포가 상세히 묘사한 『완전한 영국인 상인』은 당대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작품이 된다.

조금 더 미시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18세기부터 상품의 규격화와 표준화와 함께 신흥 부자들이 급격히 출몰하기 시작했으며, 상인과 자본가의 존재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열등감의 가장 확실한 발현이다. 바로 '중산층'이라는 표본이다. 이는 데이비드 리스먼이 특별히 주장했던 내부지향형 시대다. 여기서 모순점이 발견된다. 모두가 노력을 하면 중산층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기적인 면면(面面)에서 어떻게 내부지향적인 면모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 리스먼도 이 모순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고민은 어렵지 않게 금세 해결된다. 신의 전조가 부재하던 시대에서, 귀족들의 몰락과 함께, 평민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기에, 역설적으로 그들이 조야한 시민권을 조잡하게 확보하여 그 자리에 신의 전조 대신 법의 조항을 억지로 갖다 붙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자본이라는 단 하나의 지점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동시에 이 모든 행위를 가능케 했던 것은 열등감(성욕-불안-죄성)의 입체적인 발현이다. 귀족들이 몰락하니, 그 자리를 중산층들이 꿰차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 어설픈 법률 조항을 조잡하고 조야하게 합의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 '노동일'에서 아주 상세히 묘사한 공장주와 노동자 간의 조야한 법적 조항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서, 의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의학 자료, 그리고 신문 자료가 정확히 이를 방증한다. 마르크스는 그들을 엄격히 규탄하는 방식으로 선언했지만, 정작 그들 본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 한계로 작용한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공장주들은 그저 조잡하고 조야하게 합의한 법률 조항을 충실히 지킨 것 말고는 그 무엇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본가들은 순진했을 뿐이다.

고로, 19세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다. 당시는 거대한 두 세계로 양분되어 있었다. 한쪽은 귀족들의 세계, 한쪽은 평민들의 세계. 그리고 평민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중산층으

로 신분 상승을 노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필히 그 과정에서 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다. 당시에 귀족들의 사교계가 횡행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카드리유나 추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귀족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자신의 존재감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는 중산층으로 막 진입한 평민이 신의 전조가 도통 무엇인지도 모르는 귀족들에게 합법적인 약탈권을 발급받기 위해 손등에 키스하는 중요한 관례였다. 그래서 리스먼이 잠시 그 모순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그의 저서에서 다분히 나타났던 것처럼, 내부지향형을 다시 정의하자면 이렇게 된다. 만약에 귀족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단순히 자본이라는 단 하나의 무질서로 나아가기 바빴을 것이다. 하지만 귀족들이 중산층들에게 합법적인 약탈권을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오로지 자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9세기 당시에는 중산층들도 귀족처럼 행세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마치 페트로니우스의 『사티리콘』에서 트리말키오의 연회가 되풀이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와는 조금 양상이 다른데, 이들은 본인들이 정말로 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완벽히 착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귀족들처럼 본인들의 생활 반경을 포함하여 식습관까지 싹 바꾸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이것이 바로 데이비드 리스먼이 몇 번이고 주장했던 내부지향형의 시대였다.

[24] 19세기 경제학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을 출발점으로,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의 『인구론(1798)』과 『정치경제학 원리(1820)』, 장-바티스트 세이의 『정치경제학 개론(1803)』,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1817)』, 존 램지 맥컬럭의 『정치경제학 원리(1825)』, 나소 윌리엄 시니어의 『정치경제학 개요(1836)』,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1848)』,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1841)』, 빌헬름 로셔의 『역사적 방법에 의한 정치경제학 강의 개요(1843)』,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1867)』,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의 『정치경제학 이론(1871)』, 카를 멩거의 『국민경제학 원리

(1871)』, 레옹 발라의 『순수 정치경제학 원론(1874)』, 그리고 아돌프 바그너의 『정치경제학 강의(1892)』로 이어지며 19세기 경제학의 주요 저작 계보가 형성된다.

즉 본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으로 불렸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민중 고유의 관습법이자 총체성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잘 헤아리고 있었다. 빌헬름 로셔는 경제질서가 관습, 제도, 역사적 경험에 의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고 정의했다. 이는 곧 민중 고유의 총체성이자 관습법으로 설명된다.

[25] 약탈의 진화심리학

비로소 이 시기에 심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빌헬름 분트에 의해. 즉 인간의 지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여겼다. 더욱 정교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뒤르켐이 연구했던 것처럼 사회학도 발전했다. 한편 철학은 에드문트 후설에 의해 현상학이라는 새하얀 스케치로 퇴보했다. 그리고 문학은 이 조야한 세상을 묘사하기 위해 문체와 형식을 계속 발명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코가 예견한 '반성의 야만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극단적인 지성과 이성의 사용으로 지쳐버린 민중들은 이 모든 것에서 동시에 탈피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결국 서로가 서로의 지성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격이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3편에서 자세히 묘사했던 것처럼, 드레퓌스 사건 하나가 이들의 지성을 얼마나 퇴락시켰는지 알 수 있다.

드레퓌스 사건은 우둔한 관료제의 전형적인 희극을 연출한다. 즉 생각하기를 포기한 망령들의 전용 무대인 셈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플라우투스 희곡의 가장 완벽한 재료가 된다. 동시에 약탈은 상당히 복잡하게 변태되었다. 이제 이들은 합법적인 약탈을 서로의 내면을 향해 겨누기 시작한다. 가장 무의미한 날갯짓이 되어버렸다.

미술은 더 이상 현실을 묘사하지 않았다. 음악은 더 이상 현실을 작곡하지 않았다. 이들은 알 수 없는 너머의 저편을 묘사하기 바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간단히 '모더니즘'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실상은 극단적인 이성의 사용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망령들이 여기저

기 배회하며 골목을 기웃거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술 사조는 계속 변형을 일으키려고 했다. 에즈라 파운드가 파편화된 단어를 주워서 시를 썼던 것처럼, 제임스 조이스가 파편화된 단어를 주워서 글을 썼던 것처럼, 현실의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안개가 되어 결국 우리 내면으로 조용히 안착했다. 그래서 열등감의 발현은 오로지 나와 너의 관계로만 좁혀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중들은 더욱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분 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합법적인 약탈은 유쾌하게 기승을 부리며 더 이상 조잡하고 조야한 법률 조항이 아닌, 기하학적인 공리로 완벽히 맞물린 조항에 힘입어 자본을 열심히 쌓아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저 반대편에서는 귀족들이 완전히 갈 곳을 잃어 몰락하고 말았다. 체호프의 희곡 『벚꽃 동산』이 그를 전적으로 묘사한다. 이렇듯 모두가 유령이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가장 열렬한 내면의 태동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념'이다. 그리고 시대적 한계로 인해 가장 거대한 착각이 발생했다.

전쟁은 고대나 중세 시대처럼 물리적으로 땅을 탐하며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이념이라는 거름으로 변질되어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이념이 충돌했던 것이다. 그래서 국경의 선(線)은 성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무엇'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온갖 이념들이 귀신처럼 돌아다니기 바빴다. 철학자들은 필사적으로 어떤 철학을 주장하려고 했으며, 시인들은 필사적으로 현 시대를 고발하기 위해 여태 시도된 적조차 없는 새로운 편법을 고안해야만 했다. 또한 정치인들은 민중들을 대상으로 이념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정작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전쟁이 발발했다. 약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함도 아니요, 땅을 물리적으로 빼앗기 위함도 아니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오로지 추상적인 이념과 이념의 충돌로만 환원되니, 당시 끔찍했던 전쟁 한복판에서 죄다 정신적으로 불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심리학은 이들을 관찰하며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심리학이 고작 한 세기 만에 중후한 발전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이 과정들이 무수히 반복되기만 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오해란, 오로지 이념과 이념의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최초의 이념을 부정하기 위한 격렬한 철학적 사조가 또 태어난 것이다. 공산주의·사회주의라는 단어를 폭력과 결부 지어 인류 역사상 다시는 존재할 수 없도록 엄격히 단속했다. 하지만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그보다 한참 전에 명확히 주장했듯이, 본디 인류 역사는 사회주의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위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신의 전조를 부여받은 귀족들이 평민들을 대상으로, 신의 전조를 부여받은 영주들이 농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라파엘의 입을 빌려 표현했던 것처럼, 신의 전조를 부여받은 성직자들이 농노들을 대상으로 지대를 올리는 상황이 매번 발생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이념의 핵심은 언제나 인류의 긴 역사에서 이러한 형태를 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자, 유령들이 길목을 유영하며 모두 갈 곳을 잃어버렸고 그 와중 필사적으로 갈 곳을 찾기 위해 그럴듯한 이념을 창조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는 인위적인 조작이라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창조의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관료제를 더욱 튼튼하게 방비했고, 조잡하고 조야했던 법률 조항을 기하학적인 공리로 화(和)하여 기득권들을 위한 면책을 일찍이 마련해 두었다. 그래서 이념과 이념의 대충돌로 지리적인 요인과 뒤얽혀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보스니아 사라예보 암살 사건이 아니더라도 필히 벌어질 일이었다. 각 강국들이 미리 마련해 둔 독소 조항을 계약이라는 문서의 형태로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20세기를 대변하는 이념은 오로지 이 한 세기를 위한 무대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실상 이 20세기라는 한 세기를 제외하면 그 어디에도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핵심은 인류의 긴 역사와 언제나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평등'과 '균등'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사회주의를 '국가의 통제'로 오인하게 된 것이다. 즉 20세기는 이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표현하여 끔찍한 케레스(Κῆρες)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20세기 정치인들이 죄다 그것을 잘못 활용했기 때문이다. 19세기가 조잡한 법률 조항으로 대변될 수 있다면, 20세기는 조잡한 이념의 표현으로 대변될 수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마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처럼 좁은 길목을 돌아다니며 어떻게든지 반듯한 외투라는 의미를 찾기 위해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이다. 그러니 그 어떤 이념조차 제대로 탄생할 수 없었다.

[26] 20세기 경제 현상

경제학이 가장 크게 발달했던 시점도 명백히 20세기였다. 이유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화폐, 인구, 행정이다. 경제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의 발달로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구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군중의 이동 향방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인구의 추이를 밝혀낼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은 화폐다. 그래서 화폐의 이동을 행정적으로 손쉽게 측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다. 국세청, 중앙은행, 증권거래소, 통계청, 출입국 관리소, 병무행정, 노동부, 관세청, 산업통상부, 의료보험기구, 등기소 등. 그러니 경제학의 발전은 필연적이었다.

경제학은 정확히 20세기부터 '정치경제학'으로 불리지 않게 되었다. 독립적인 개념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경제학'으로 지칭되었다. 왜냐하면 화폐, 인구, 행정이 극도로 발달한 시점에서 경제학은 더 이상 복합적으로 설명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레옹 발라의 『순수 정치경제학 원론』이 이를 가장 잘 대변한다. 고로, 레옹 발라의 일반 균형은 20세기 당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민중 고유의 총체성이었다.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화폐의 순환과 그 유통 속도를 계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화폐의 흐름을 보다 유동적으로 분석하려 했으며, 아서 피구는 경제학을 단순한 이론의 영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공공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그 실천적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하지만 대공황이 발생하고 고작 십 년도 채 되지 않은 이론들이 적용되지 않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여 수요와 공급의 인위적인 조정을 역설했다. 마찬가지로, 그의 이론은 그 당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민중 고유의 총체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론 역시 채 수십 년을 버티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제대로 추적해야 마땅하다. 어째서 이론들이 계속 폐기되었던 것인가?

그 이유를 추적하기 위한 핵심은, 관찰 대상인 화폐, 인구, 행정이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변수였다는 점에 있다. 경제학이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현실을 측정하고 통제하려 할 때마다,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행정의 망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업 방식과 생존 전략을 고안해 냈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와 자본가들은 행정의 규제와 조세를 우회하여 화폐의 이동 방식을 변형시켰다. 195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은 각국의 관세청과 국세청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를 활용하고 내부의 이전가격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런던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로달러' 시장은 미국 중앙은행의 지불준비금 규제나 금리 통제를 받지 않는 역외 달러 시장이었다. 자본가들은 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국경 밖으로 화폐를 빼돌려 막대한 신용을 창출했고, 이는 케인스주의가 전제했던 '국가 주도의 폐쇄적 거시경제 통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둘째, 노동자와 인구의 이동 역시 행정 당국의 통계적 예측을 지속적으로 빗나갔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항해 극렬한 파업과 임금 인상 투쟁을 벌였다. 이는 물가 상승과 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기현상을 낳았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반비례한다는 기존 경제학의 필립스 곡선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더불어 여성의 대규모 노동 시장 참여와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의 이주 노동자 유입은 기존 노동부와 통계청이 상정했던 표준적인 노동 인구의 틀을 해체하며 인구 이동의 변동성을 극대화했다.

셋째, 금융 자본가들은 파생상품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창조하여 행정의 측정 범위를 초과해 버렸다. 19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되자, 자본가들은 환율과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 옵션, 스와프 같은 금융 파생상품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는 실물 경제의 규모를 아득히 뛰어넘는 가상의 화폐 흐름을 창출했고, 증권거래소나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감시 체계로는 이 복잡한 위험의 전이를 도저히 측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은행의 역할 변화는 화폐의 팽창과 행정 통제력 상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했던 글래스-스티걸법 체제 아래서 은행은 예대마진이라는 전통적 수익 모델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금융 자유화의 물결과 함께 은행들은 이 행정적 장벽을 집요하게 허물기 시작했다. 이들은 우회적인 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로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우회했고, 마침내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이 통과되면서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사의 경계가 완전히 소멸했다. 거대해진 '보편적 은행'들은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스스로 거대한 자본가가 되었고, 중앙은행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독자적인 신용 창출의 주체로 거듭났다.

은행이 고안해 낸 자산유동화 기법은 화폐의 물리적 이동 속도와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장기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매출채권, 자동차 대출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실물 자산들을 잘게 쪼개고 묶어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도 위험은 부채담보부증권(CDO)이라는 더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재포장되어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다. 은행은 대출의 위험을 장부에 남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새로운 화폐를 확보하여 또 다른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지만, 각국의 금융 감독 기구들은 이 파편화된 위험이 국경을 넘어 어디로 흘러가 누구에게 축적되고 있는지 추적할 행정적 수단을 완전히 상실했다.

나아가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지불준비금 규제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대한 우회로를 구축했다. 은행들은 장부 외 거래 기구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도관체나 구조화투자회사(SIV)를 역외 시장이나 조세 회피처에 설립하여 막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통적인 은행과 동일하게 신용을 창출하고 화폐를 융통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예금자 보호나 중앙은행의 건전성 규제 같은 공적 행정망의 감시는 철저히 벗어나 있었다. 결국 20세기 말의 은행들은 국가가 인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화폐 구조 이면에 국가의 통계와 관리가 닿지 않는 또 다른 거대한 화폐 관계망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토록 변동이 극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이다.

[27]　열등감에 대한 시대적 도표

고대 시대는 열등감이 수치심으로 해석된다. 신의 전조라는 혜택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는 그리스와 달리 독립적으로 자생했다. 그래서 그들만의 유피테르가 실재했다. 호메로스 이후로 신의 전조는 타락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치세기에 이르러 '인간의 시대'로 진입했다. 이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철학을 논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언어가 상당히 분절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이 점차 발달하면서 지리적 요인과 함께 무수한 법률 조항이 탄생했다. 신의 전조에 기반한 법률 조항은 조잡하고 또 조야했다. 로마 황혼기에 인간의 이성이 극에 달하며 야만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 즉 열등감이

극단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의 전조가 탄생했다. 구전을 바탕으로 한 민중 고유의 서사시가 태어났다. 베오울프, 롤랑의 노래, 엘 시드, 니벨룽겐의 노래는 영웅의 시대를 상징한다. 단테는 중세의 호메로스였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분노를 야만적으로 터뜨렸기 때문이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마치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비교적 분절된 언어로 철학을 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라틴어 '[v] 발음'이 확연히 구분되었다. 마지막 영웅의 시대를 노래한 시인은 아리오스토와 토르콰토 타소다. 이들은 여전히 분노를 야만적으로 터뜨렸다. 올리버 크롬웰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르러 인간의 이성이 점차 발달하며 신의 전조를 기반으로 한 조잡한 법률 조항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백과전서파가 활동하던 당시, 인간의 이성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은 인류의 긴 역사의 마지막 신의 계승자였다. 즉 열등감이 수치심으로 환원되던 마지막 시점이었다. 이후, 부재한 신의 전조의 빈자리에 조잡하고 조야한 법률 조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세기는 수치심이 몰락하고 열등감이 대체했다. 에밀 뒤르켐이 진단했던 것처럼, 철학자와 사상가는 부재한 신의 전조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허무주의'는 이때부터 생겨났다. 바이런적 영웅은 이를 뜻한다. 그래서 모두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반성의 야만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스 웨이크』는 반성의 야만시대를 대표한다.

[28] 경제학에 대한 지리적 도표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따라, 그리스와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와 스키타이는 서로를 인지하던 상태였다. 아리아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탈리아반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피로스 대왕은 로마 병사들을 향해 '야만인'이라고 지칭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와 카르타고가 처음으로 서로를 인지하던 시점이었다. 고로, 역사가 폴리비오스가 자세히 열거한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수백 년 전 조약 내용은 허구에 가깝다. 스트라본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인들에게 이베리아반도는 '세상의 끝'이었다. 카이사르의 저서에 따르면, 그는 갈리아인들을 야만인이자 교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았다. 당시 로마는 갈리아, 히스파니아, 브리타니아, 게르마니아, 아카이아, 아시아, 시리아, 유다이아, 파르티아, 아프리카, 아이깁투스, 마우레타니아를 인지하고 있었다. 무역은 지중해와 흑해에서 빈번히 이루어졌다. 이어서, 비코는 중세 시대를 가리켜 '돌아온 야만시대'라고 일컬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점차 부상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13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공장제 수공업이 크게 발달한 상황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자 동맹이 유럽 전체의 물류를 통제했다. 각각 런던, 브뤼헤, 베르겐, 노브고로드에 대규모 무역 기지를 두었다. 영국은 유럽 대륙을 경제적으로 견제했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 따라, 유럽은 아시아의 거대한 부를 인지했다. 15세기 말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항해로 인해, 구대륙은 마침내 신대륙을 인지하게 되었다. 고로, 대서양은 더 이상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17세기 네덜란드와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아시아의 향신료 시장을 경제적으로 통제했다. 이어서 대서양 횡단 무역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삼각망으로 연결했다. 애덤 스미스의 저서에 따르면, 부의 원천은 더 이상 금은의 축적이 아니라 분업과 노동이었다. 곧이어 증기기관의 도입으로 그 분업은 폭발적인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되었다. 마르크스의 저서에 따르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독점하여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앗아가는 착취자였다. 고로, 그는 인간이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한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서 자본가를 구조적인 악으로 인지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당시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자원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인지하고 분할했다. 무역은 이제 지중해와 대서양을 넘어 전 지구적인 규모로 빈번히 이루어졌다. 20세기 초, 세계 경제의 중심은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 전체를 향한 거대한 채권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세계는 자본과 부채의 흐름으로 완벽히 지정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의 붕괴는 전 세계를 경제적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고로, 지리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20세기의 세계 시장은 한 국가의 금융 붕괴가 곧 만국의 실물 경제 몰락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29] 약탈의 세분화

먼저, 필히 전제 조건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20세기는 신의 전조가 완전히 실종되었다. 19세기에는 그나마 귀족들이 합법적인 약탈권을 발급해 주었기에 명예에 대한 나름의 헌사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세기에는 그마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고대 시대는 열등감이 수치심으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20세기에는 열등감이 너와 나의 내면적 비교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수치심은 더 이상 관심 분야가 아니었다. 오로지 너와 나의 물리적인 비교가 전부였다. 우리는 이를 간단히 '유비(類比)'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성적 유비가 아닌, 물리적 유비의 직접적인 체현이다. 그리고 리스먼은 이를 두고 '타인지향형'이라고 칭했다. 그런데 경제 전반적인 현상은 타인지향형 시대에 극단적인 기세를 부렸다.

화폐, 인구, 행정은 학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항시 변동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리적 유비를 통해 열등감을 직접적으로 발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외형을 꾸미는 산업이 발달하고, 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한 기업가들이 각기 터전을 마련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어나갔다. 그 조짐은 마크 트웨인의 사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매번 주식 투자에 실패했는데, 다름 아닌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그 주위로 신(新)사업이 발호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투자한 신사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운명이었다. 이처럼, 대유비(大類比) 시대에도 신사업이 여기저기 왕성하여 좀처럼 독점적인 원의 반경을 추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가격과 가치의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서 명확히 해명된다. 그리고 슘페터가 지적했던 창조적 파괴가 더는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도 명확히 해명된다.

물리적 유비를 직접적으로 체현하고 다니던 타인지향형 인간들은 모든 사물의 가치를 오로지 '물리적'으로만 결산한다. 모더니즘 시기에는 각자 아카키처럼 망령이 되어 반듯한 외투를 찾고자 노력했다면, 제2차 세계 대전 전후(戰後)에는 그마저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의미가 곧 '너와 나'의 본질적인 문제로 환원되었다. 이는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의미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를 대유비 시대라고 지칭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 갤브레이스와 보드리야르가 활동했다. 그래서 슘페터가 주장한 창조적 파괴는 이 시점에 이르러 의미를 완벽히 상실했다. 왜냐하면 단어를 다시 정정하여 이를 '창조적 대체'로 바꾸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대체품'이라고 부른다. 상품

은 곧 기호로 바뀌고, 결국 파괴는 기호의 대체로 변환된다. 그래서 상품 진열장에 차례로 놓인 α, β, γ가 다음에 $\delta, \varepsilon, \zeta$로 모조리 바뀌어도 아무런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품의 기호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독점 사업의 원의 반경을 기준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해 보자. 20세기 경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소묘하면, 본래 독점 A가 거대한 원을 구성하고 B, C, D가 차례로 종속된 상태로 서로의 원의 가장자리를 갉아먹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교집합이 가격과 가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 C, D는 결국 A에게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도 결코 A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물리적 유비 시대는 독점 A조차 근본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A에게 큰 영향을 행사할 잡다한 기관과 단체, 그리고 국가와 은행, 또는 경쟁사와 경쟁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B, C, D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독점 E로 이동하거나 그쪽으로 조금 원을 걸쳐 놓은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비단 그곳만이 원을 조금 걸쳐 놓은 상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유비가 소문을 듣고 금세 찾아와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학에서는 '유동성'이라고 부르며, 또는 '이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역시나 그 유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비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거나, 다른 유비는 또 다른 독점 F로 원을 조금 걸쳐 놓거나, 다른 유비는 신사업을 개척하거나, 다른 유비는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주장했던 기업가 혁신은 다소 망상에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순진하기 짝이 없는 트리말키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유비 시대는 실상 각 개개인이 사업자나 다를 바 없다. 좋든 싫든 소문에 이끌려 물리적 유비를 마땅히 선호하기 마련이다. 친구가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나도 그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그러니 이미 이들은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수많은 유비로 이루어진 다양한 원들이 서로 중첩하고 또 맞물리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치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상품처럼 각 회사조차 이런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했듯, 화폐·인구·행정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독점 A의 원의 크기와 반경을 포함하여 수많은 독점 기업들 역시 폭발적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그러니 더는 통제된 행정 자료를 참고할 수도 없었고, 또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리며 자본이 유출되는 사건이 종종 벌어졌던 것이다. 20세기 전반적인 경제 현상을 요약하자면, 마치 에스파냐가 신대륙을 발견하여 금·은광을 채굴했던 것처

럼 신사업의 무한한 도약이 이루어져 모두가 물리적 유비 상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니 20세기 경제학자들의 이론들이 고작 채 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30] 뵘바베르크 집중 분석

경제학자 뵘바베르크의 가장 큰 실수는 주관과 객관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놓친 채, 무위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 있다. 그는 카를 멩거의 주관적인 효용 법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거시적인 효용표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필히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야 마땅했다. “어째서 인간은 미래보다 현재를 더 크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가?” 또는 “무슨 수로 인간은 미래와 현재의 가치 차등을 분별할 수 있는가?” 뵘바베르크는 이에 관한 그 어떤 의문조차 갖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자본과 이자』에서 ‘서비스’ 내지 ‘우회’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찌하여 상품의 서비스를 효용하는가? 즉 인간이 물질적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본원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떠한 질문조차 던지지 않은 채,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이자 효용하는 존재라고 미리 전제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대한 파급력은 곧 국가의 거시성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그는 ‘마지막 한계’라는 효용 법칙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와 노동에 대한 관계를 면밀히 추적한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제시했던 미래와 현재에 대한 가치 차등의 확장이다. 고로, 주관과 객관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그는 일찍이 포기한 채, 카를 멩거의 주관적인 효용 법칙과 물질적 서비스에 대한 우회생산을 동시에 접목시켜 시간에 따른 선호율을 주장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인간이 미래와 현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전혀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그 시도 자체도 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토지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효율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론이 하나 제기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며, 거시적 관점에서 조감(鳥瞰)할 경우 물질적 서비스에 대한 우회생산은 시간에 따른 선호

율로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단 하나의 역설을 필히 마주할 수밖에 없다. 뵘바베르크는 『마르크스 체계의 종결에 관하여』에서 그토록 강건하게 비판했던 자신의 논조를 스스로 무력하게 만드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한 바 역시, 주관과 객관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일찍이 포기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포괄하는 형태가 될 것인데, 이는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적 일반화'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특히 사회적 일반화를 주장하기 위해, 주관에서 비롯된 개인의 고유성이 어떻게 객관에서 비롯된 사회적 일반화와 맞닿을 수밖에 없는지 상세히 논증한 바 있다. 고로, 마르크스는 주관과 객관을 학문적으로 연결하여 시대에 대한 진단까지 내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뵘바베르크는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적 일반화를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그의 이론이 마르크스의 견고한 대성당을 부수었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배의 건조 기간이 1년이며, 인부의 임금이 작업 완료 시점에 1,000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인부가 6개월 시점에서 조기 정산을 요구할 경우, 그는 당초 예정된 1,000이 아니라 그 절반인 500만을 지급받게 된다. 왜냐하면 배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경우 정확히 그 기간은 1년 남짓 걸리는 기간이 될 것인데, 배는 그 절반 정도만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인부는 당연히 50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자아낸다. 어떤 막대한 상품을 제작하기 위해선, 기업과 단체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착수될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하다. 그리고 이 기업에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여할 가능성도 짙다. 그리고 보통 이를 '예산'이라고 부른다. 정해진 예산이라는 한도 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 상급자에게 제출하기 위한 기획안을 발표하고 난 뒤, 엄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기간과 정확한 인부의 숫자와 정확한 임금을 산정하여 어떻게 배분할지 차례대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즉 처음부터 어떤 예산이라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공정 작업이며, 보통 그 과정에서 예산 한도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그 공정이 중단될 확률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단체는 인부에 대한 임금을 1년과 6개월이라는 일정한 시기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각 인부마다 숙련된 기간에 대한 차등을 둔 뒤 그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인부가 그 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면 ‘연봉’이라는 임금으로 기업에서 지불하려고 할 것이며, 반대로 B라는 인부가 그 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저 ‘시간’과 ‘일수’에 따르는 기간으로 산정하여 정해진 예산이라는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즉 자연적인 우회생산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가 그 예산안에 대해 심의 또는 확정을 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미래와 현재에 대한 상품의 우회생산이 적극 적용이 된다면 애당초 이런 예산안 분배 과정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바로 그 예산안을 기획하기 위한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되는가?

조세 수입, 국채 발행, 정책금융기관, 선수금, 회사채, 주식 발행, 사내 유보금 등. 그리고 이러한 예산안의 공통점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치 차등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실의 예산은 철저히 사회적으로 축적되고 객관화된 자본인데, 이는 국가나 기업이 사전에 축적해 둔 잉여 자본이나 금융 시장을 통해 조달된 거시적 투자금이기 때문이다. 뵘바베르크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철도, 철강, 화학, 조선업이 주도하는 산업혁명 시기였다. 배를 건조하는 대형 조선소나 대륙횡단 철도를 부설하는 기업들은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 막대한 주식을 발행하고 회사채를 팔아 불특정 다수의 거대 자본을 한 번에 조달했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미래의 세수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거대 금융 자본이나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군수 기업과 조선소에 예산을 쏟아부었다. 또한 조선소에서 증기선이나 철갑선을 건조할 때도, 선주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선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시 상거래 관행이었다. 그리고 각 기업은 선수금과 은행에서 할인받은 상업어음을 통해 인부들의 주급을 지불했다. 프랑스의 크레디 모빌리에(Crédit Mobilier)나 독일의 대형 크레디트방크(Kreditbanken) 등은 단순한 예금 은행이 아니라, 산업 시설과 철도, 조선에 막대한 자본을 직접 투자하고 대출해 주는 투자 은행이자 정책 금융의 역할을 수행했다.

먼저, 뵘바베르크는 주관과 객관에 대한 엄밀한 정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연결했다. 그리고 그는 주관에서 비롯된 효용 법칙을 객관에서 비롯된 국가 효용 법칙으로 연결했다. 그는 마르크스의 ‘사회적 일반화’를 혹독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 또한 그 과정에서 발단된 우회생산이라는 사회적 일반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물질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일반화는 주관과 객관의 ‘변증법’과는 조금도 관계하지 않은 내재적 논리 체계에 불과하며, 그마저 시간 선호와 효용 법칙은 현실과는 완벽히 유리된 공상학으로 자리매

김을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마르크스의 이론을 그 무엇도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체계에서 개별 주체의 구체적 노동은 원자화된 주관의 영역에 고립되지 않으며, 시장의 교환 과정을 매개로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라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가치 관계로 환원되는 실천적 변증법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보편적인 타당성을 얻는다. 하지만 뵘바베르크는 주관과 객관 그 무엇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카를 멩거의 주관적인 효용에 입각한 체감 법칙을 바탕으로 했지만, 정작 그것이 어떠한 원칙에 의거하는지 단 하나도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그 전제를 미리 자명하게 구성하여 주관과 객관 사이만큼 벌어진 그 틈바귀는 조금도 관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고로 그가 비판한 핵심적인 논조, 즉 '사회적 일반화'는 오히려 카를 마르크스가 아니라 그의 이론에 더욱 부합한 핵심 골자가 된다. 만약 그가 정말로 마르크스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했다면, 물질적 서비스에 의한 우회생산을 주장할 것이 아닌, 차례로 주관이 무엇인지 객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최종적으로 주관과 객관이 어떠한 정합성을 거쳐 하나의 객관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지 엄밀한 변증법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여태 그 누구도 마르크스의 이론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철학적 사유를 가능케 할 만큼의 충분한 관찰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순수한 인식 주관'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철학자는 시간과 공간을 영원히 초월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31] 성욕-불안-죄성의 경제학적 순환

한계효용의 체감 법칙을 다시 정정할 필요가 있다. 현상 너머의 본질은 언제나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계효용의 체감 법칙은 근본부터 잘못 구성되었다. 왜냐하면 성욕과 불안, 그리고 죄성의 선험적 관계도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20세기에 이르렀을 당시, 물리적 유비는 경건함과 수치심이 아닌 오로지 열등감의 극단으로 표현되기 바빴다. 그래서 19세기 경제학에서 줄곧 논했던 수요와 공급 법칙은 오히려 그 당대를 완벽히 대변하는 '경위서(經緯書)'인 셈이다. 경건함과 수치심을 잃고, 열등감의 점진적인 증폭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실상 상품을 연속적으로 소비했을 때 표출되는 방식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완전히 반대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마땅하다. "어째서 인간은 상품에 대한 체감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인가?" 또는 "왜 인간은 상품에 대한 연속적인 소비를 마다하려고 하는가?" 인간은 상품을 소비하면서 동시에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소비는 곧 타락성의 다른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정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타락성'을 원초적인 숭고함으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유비 시대는 타락성을 그저 게으름으로 치환하니 말이다. 그래서 슘페터는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귀스타브 르 봉의 저서는 오히려 완벽한 '변명서'로 기능한다. 물리적 유비 시대에서 경건함과 수치심을 논하는 것은 조금도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이 상품을 연속적으로 소비하게 되면 필히 불안함을 크게 느끼게 되고, 동시에 성욕(욕망)을 우선하여 다시 상품에 대한 소비를 갈망하게 된다. 그리고 죄성은 행정적 '결재서류'처럼 가장하여 그 틈바귀에 몰래 덧붙여 버린다. 그래서 물리적 유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결코 깊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 순환적 고리가 계속 반복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놓인 사물도 유비요, 인간도 유비요, 모든 것이 오로지 물리적 유비로만 기능하기에 죄책감을 느낄 새도 없이 곧 다음 상품에 대한 소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계효용의 체감 법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다름없다. 음료수를 소비하는 사람은 동시에 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콜라를 소비하는 사람은 동시에 사이다를 소비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연초를 소비하는 사람은 전자담배를 소비하는 사람과 같으며, 책을 소비하는 사람은 전자책을 소비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상품에 대한 소비를 통해 성욕과 불안, 그리고 죄성이 신속하게 증폭한다. 그래서 물리적 유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상품에 대한 소비를 결코 관둘 수 없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토록 게으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정말로 경건함과 수치심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반대로, 상품에 대한 소비욕은 무한정 증가하여 결국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지쳐 버렸다. 그러니 현대인들은 누차 '원시 시대'를 아득하게 동경하는 것이다.

고로, 사정이 이렇다면 어째서 정치인이 '광대'로 전락하고 정치 행위가 '관전의 콜로세움'으로 추락했는지 추측할 수 있게 만든다. 현대인들에게 정치란 최고의 스포츠 현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제학 이론의 두 가지 딜레마가 탄생한다. 첫째, 경제학의 모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경제학의 모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이 가능한 이유는 '물리적 유비'로 인한 환상에 불과하다. 화폐, 인구, 행정의 극단적인 발달이 물리적 유비의 조밀한 군집을 만들었다. 그래서 경제학의 모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설명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반면, 바로 물리적 유비의 조밀한 군집은 모든 상품에 대한 소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조차 깨닫지 못하는 새에 성욕-불안-죄성의 깊은 타락으로 튕겨져 버렸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든지 다른 상품의 소비로 넘어갈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즉 경제학의 모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설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32]　약탈의 미시적인 균등화, 첫 번째

화폐, 인구, 행정의 발달과 함께 약탈도 폭력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다. 비코는 법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발전할수록, 즉 군주국으로 나아갈수록 신민이자 시민들도 본성적인 날카로운 날이 둥글게 무뎌지면서 다소 온화하게 된다고 서술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온화하게 만들었던 것인가?

자본이 각 행정기관으로 투자되면서 기업과 동시에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는 경제와 유기적인 몸뚱어리를 형성했다. 첫 번째는 시험 제도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격증 제도를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대학 입학제도를 들 수 있다. 결정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토록 결정하게끔 구성되어 버렸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직업을 얻고 싶다면 필히 시험, 자격증, 심지어 대학 졸업장까지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신의 전조가 부재한 시대에서 마치 신의 전조라도 받은 양 계급적 잣대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

로, 귀족의 조건은 좋은 대학, 좋은 점수, 좋은 직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결혼의 조건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몇 가지 조건이 누락된다면 귀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중산층은 중산층끼리, 하류층은 하류층끼리 자연스레 묶이게 되었다.

시험 제도는 형평성에 맞게끔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선진국을 대표하는 국가들은 시험 문제를 기득권들이 주관한다. 이들의 목표는 학생들을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야 기업들이 앞으로도 자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대학교는 자격증 발급처이자 기업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수많은 기업과 단체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어, 마치 카프카가 묘사한 단편 『법 앞에서』처럼 각 단단한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배치해 두었다.

무사히 귀족의 반열에 오른 자는 합법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33]　약탈의 미시적인 균등화, 두 번째

물리적 유비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와 나'의 관계를 미시적으로 확장했다. 왜냐하면 SNS의 발달과 영화·드라마 산업, 그리고 미용·패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라는 새로운 계급표를 만들었다. 큰 키,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작은 얼굴, 다이어트 등 자신의 선천적인 존재 자체가 곧 계급으로 측정되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외형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유비적으로' 약탈당할 수밖에 없다. 곧이어, 성격에도 새로운 계급표를 만들었다. 외향적은 우수한 인간이고, 내향적은 열등한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향적인 성격을 스스로 혐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격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물리적 유비가 '선천적으로' 획득했기 때문이다.

고로, 외형에 하자가 있든 성격에 하자가 있든, 결국 친구가 없고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도 없다면 합법적인 약탈 대상이 된다. 이 모든 일은 오로지 유비적으로만 행해진다.

[34]　약탈의 미시적인 균등화, 세 번째

현대 귀족의 조건이란 이렇다. 외형, 직업, 재산, 성격, 사회성, 그리고 부모다. 아리스티데스처럼 청렴한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재산이 넉넉한 부모를 말한다. 적어도 저 여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은 포함되어야 귀족이라고 마땅히 칭할 자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저 여섯 가지는 각 사회와 국가의 관습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벌어진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물리적 유비가 극단으로 치닫는 중이기 때문이다.

[35]　약탈의 균등화

생산의 다른 말은 소비가 된다. 그래서 생산을 한다는 것은 곧 소비를 한다는 것과 동격이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이 물리적 유비로 존재하여 언제든지 '창조적 대체'되기 때문이다. 유비적인 상품을 소비하면 또 다른 유비적인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투입한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상품은 물리적인 유비로서 기능하여 시간에 따라 상각된다. 그래서 소비자는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이어서, 생산자는 소비자가 되어 진열대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여기서 '대출'이라는 개념이 파생했다. 생산자가 유비적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본을 빌려야 하는데 보통 그 기관을 은행에서 대행해 준다. 유비적인 존재가 유비적인 상품과 함께 발돋음했던 20세기에는 긴히 계급을 구분 짓지 않았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한도가 없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철저히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각 개인에게 부여했다. 보

통 그 조건이 ‘안정적인 직업’을 기반으로 한다. 고로, ‘비안정적인 직업’을 갖춘 사람에게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36]　약탈의 거시적인 균등화

자유무역협정,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글로벌 신용 평가 제도. 규제 철폐, 시장 개방. 외환 보유고, 재정 건전성. 금융상품과 파생상품. 중앙은행. 단 하나의 금리. 기축통화.

[37]　21세기 경제 현상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상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로 빤히 나타난다. 언제나 이론이 현실보다 뒤늦기 때문이다. 21세기는 20세기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벤 다이어그램을 3차원으로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치 위상 다양체의 ‘베티 수’처럼 단순히 구멍이 뚫려 있는 수준을 넘어, 구멍의 개수와 넓이와 깊이까지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화폐, 인구, 행정이 더 이상 변동을 보이지 않고 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빈틈 사이로 화폐, 인구, 행정이 몰려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자본의 흐름을 관계망으로 지도처럼 펼쳐서 어느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멍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면 이것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까지 이해할 수 있다. 바로 그 구멍의 존재란 투명한 상품들의 군집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했을 때 정확히 이런 사태가 초래되었다. 학자들은 투명한 구멍을 좀처럼 들여다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투명한 상품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38] 수학의 역사에 관하여

수식의 역사는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소급된다.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세계는 '비율의 세계'다. 마찬가지로, 비율의 세계란 곱셈의 세계로 표현된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원의 둘레와 그것을 둘러싼 곡선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다각형의 종합으로 분할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이와 같은 방식이 뉴턴에 의해 반복된다. 뉴턴은 정적인 비율의 세계를 동적인 비율의 세계로 인도했다. 왜냐하면 뉴턴은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어서 하나로 연속된 근삿값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존 로크는 『인간지성론』에서 뉴턴의 천재성을 극찬한 바 있다. 하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의 논리학을 역사의 관점에서 크게 조망하면,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1권에서 서술했듯, 고대 그리스 학파들의 흩어진 변증법을 몇 가지의 약속으로 묶어 논증의 소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곧 '공리'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그의 관점은 조금도 그릇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이미 분절된 언어를 통해 철학을 충분히 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도형과 도형의 비율, 그리고 선분과 선분의 비율, 그리고 각도와 각도의 비율로 드러나는데, 이는 총체적인 곱셈의 세계로 대변된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수(數)'를 관찰하며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로 설정했다. 이 최초의 발견은 연속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것'이란, 선형이 아닌 비선형이며 이는 비율과 비율의 세계이자 곧 연속적인 '무엇'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덧셈과 뺄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곱셈의 세계인 것이다.

데이비드 흄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중 '오성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의문을 품었다. "점과 점을 잇는 것이 어째서 선이 되는가?" 그의 질문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철저히 경험의 원칙에 입각하면 그의 의문은 너무나도 당연시된다. 왜냐하면 점과 점을 잇는 것을 '선'으로 지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를 두고 선험적 시간과 공간으로 기하학의 순수성을 소명(疏明)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부록 '칸트 철학 비판'에

서 칸트가 직관적 인식을 대부분 소홀히 하고 추상적 사고라는 원칙론을 위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질문 자체를 잘못 제기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은 비율의 세계인데, 이는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고로, '점과 점을 잇는 것은 선이다'라는 공리는 철저히 비율의 세계로 한정된다. 그리고 비율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비선형에 기반하고 있어, 인간의 직관이나 이성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원의 둘레를 계산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도형으로 분할하여 덧셈의 총합으로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원의 둘레를 본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구태여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택했을 리 없다. 그리고 이를 '발견'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직관과 이성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뉴턴에 이르러 정적인 비율의 세계가 동적인 비율의 세계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역학'이라고 부른다. 역학의 정의란, 비선형을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동적인 비율의 세계다. 그래서 역학은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수를 바탕으로 하는 곱셈의 세계로 표현할 수 있다.

[39] 수학과 유비에 관하여

경험론자 존 로크는 『인간지성론』에서 무한함을 증명하기 위해 '연장'의 개념을 빌렸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연장이란 '확대'를 뜻하는데, 물리적으로든 추상적으로든 어떤 사물을 무한히 확대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유비의 개념을 빌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무한함을 상상할 수 없다. 오로지 '무한함'을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연장으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말이다. 인간은 무한한 우주를 상상할 때도 정말 무한함을 그 자체로 상상하지 못한다. 인간의 상상은 실제로는 무한한 우주마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임의로 경계를 설정해 유한한 것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손바닥 한 뼘 정도로 간단히 축소된다.

고로, 인간이 정말로 무한함을 그 자체로 증명할 수 있다면 유비적으로 비율을 측정할 그 어떤 당위성조차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1'이라는 숫자가 그 자체로 무한하다면

다른 어떤 요소조차 빌리는 법 없이, 우리 모두가 익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1’이라는 숫자에서 절대적인 무한함을 이미 증명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데이비드 흄은 ‘오성에 관하여’에서 인간이 사물을 추상적으로 인식할 때 항상 유비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자세히 입증했다. 실로 인간은 직관적 인식에서나 추상적 사고에서나, 어떤 대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비적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를 갖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수학의 세계는 비율의 세계이며 이는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수를 기본적으로 가정하는데, 필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시 유비적인 사물과 사물의 비율을 추상적으로 전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코시의 ‘엡실론-델타 논법’과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은 바로 이를 뒷받침한다. 사물의 무한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사물의 유비를 빌려와야만 하는 것이다. 수학의 엄밀한 정의라는 방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숫자 ‘1’이 무한하다면, 필히 숫자 ‘1’이 무한하지 않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

[40] 수학과 연속에 관하여

수학이란,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수를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비율의 세계이자 곱셈의 세계이며, 그 성격은 곧 유비와 유비의 연속적인 비선형을 뜻한다. 아이작 뉴턴은 정확히 수학의 그 성격을 이해하고 『프린키피아』를 집필했다. 이처럼 수학은 본래 ‘연속’을 가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직선으로 분할하여 그 총합의 근삿값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역사의 도약이 된다. 물리학의 공식이 이토록 우아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수학의 정적인 비율의 세계가 동적인 비율의 세계로 새롭게 탄생했다. 역학은 이를 뜻한다.

바이어슈트라스 함수는 연속을 기본적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된다. 이는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수를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비율의 세계이자 곱셈의 세계이며, 그 성격은 유비와 유비의 연속적인 비선형을 가리킨다.

[41]　경제학의 합법적 수식 약탈에 관하여

경제학은 연속을 전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비율의 세계이자 곱셈의 세계가 아니며, 동시에 유비와 유비의 연속적인 비선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태 우리가 진중하게 논의했듯이, 경제학의 시초는 약탈에서 시작했고 학자들이 처음으로 다루었던 학문의 성격도 곧 약탈이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이 측정 도구로서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 시기는 19세기다. 그리고 알프레드 마셜에 의해 비로소 경제학이 물리학으로 변형되었다. 그는 『경제학 원리』 부록에서 연속적인 수식의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알프레드 마셜은 『경제학 원리』에서 경제학이 물리학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스스로 고백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학은 본질적인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디 미분이란 유비적인 비율의 연속적인 비선형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물리학 수식은 언제나 곱셈으로 표현된다. 반면, 경제학은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가져와도 언제나 덧셈과 뺄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학은 선형적이다. 고로, 경제학의 모델은 $y = aX + b$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알프레드 마셜은 부록에서 이것을 완벽히 입증했다. 칼자루의 수요 탄력성은 단지 완성품인 칼의 탄력성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칼날의 공급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여기서 칼자루에 대한 파생 수요 $y = f_1(x)$를 구하기 위해, 전체 칼의 수요에서 칼날의 공급을 차감한다.

$$y = f_1(x) = F(x) - \phi_2(x)$$

그리고 칼자루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공식을 도출해 낸다.

$$-\left\{\frac{xf_1'(x)}{f_1(x)}\right\}^{-1} = -\left\{\frac{xF'(x) - x\phi_2'(x)}{f_1(x)}\right\}^{-1}$$

고로,

$$\left\{-\frac{x\,F'(x)}{F(x)}\cdot\frac{F(x)}{f_1(x)}+\frac{x\,\phi_2'(x)}{f_1(x)}\right\}^{-1}$$

그렇다면 경제학이 언제부터 이런 수식의 형태를 가장하고 있었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마의 마지막 계승자인 나폴레옹이 활동하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베르너 좀바르트가 원저에서 서술했듯이 규격화와 표준화가 대량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동시에 조잡한 법률 조항이 탄생하여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도 강박적으로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고집하게 되었다.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모든 단어를 결벽적으로 정의하고자 했다. 그리고 경제학이 점차 독립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부터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수요와 공급이라는 현상에서 '효용'이라는 독자적 개념이 분리되었고, 나아가 그 '효용'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수요와 공급의 현상과 다시 연결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기본적인 토지에서 수요의 효용과 공급의 효용을 적절히 계산했다. 하지만 당시까지 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2장에서, 고전학파가 현실에서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시장을 마치 로빈슨 크루소의 원시적 상황에 결부시켜 설명한다고 비판했다. 그가 비판한 핵심은, 고전 경제학자들이 실물과 명목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원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혼동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게도 그렇다 할 참작과 여지를 주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를 비롯한 당대 한계효용학파는 '마지막 효용'이라는 개념을 '한계'라는 용어로 갈음하여, 현실에서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연속적인 시장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요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현상에서 효용이라는 개념이 분화되었고, 그 결과가 나름 일정하게 산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것을 연속적인 곡선으로 새롭게 다듬었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자들은 합법적으로 물리학 수식을 약탈했다. 왜냐하면 물리학 수식이 표현하는 비율의 세계는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수를 바탕으로 하는 곱셈의 세계이자 유비와 유비의 연속적인 비선형을 근본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리학 수식은 일정한 상수와 변수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등호(=)'를 사용하여 우주 보편적인 보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들이 수학적 공리에 크게 의존하지 않은 채 독창적인 이론을 구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을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학은 그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보존되지 않으며,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수를 바탕으로 하는 비율의 세계이자 곱셈의 세계로 나타낼 수 없으며, 유비와 유비의 연속적인 비선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던 물리학 수식은 처음부터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셈이다. 이들은 아무런 철학적 고찰도 없이, 등호(=)를 사용하여 섬세한 미분을 가정하면서도 그 성질이 곧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수를 바탕으로 하는 비율의 세계이자 곱셈의 세계라는 사실조차 헤아리지 못했다. 단지, 수요와 공급의 효용을 적극 설명하기 위하여 물리학 수식을 합법적으로 약탈했을 뿐이다. 이는, 현재까지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 일정한 상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의 방정식이 아무리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결괏값과 근삿값의 모델 형태는 $y = aX + b$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본래 경제학은 보존과 연속을 상정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항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식에서 표현하는 상수와 변수라는 개념도 불완전한 모든 조건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경제학에서 빈번히 활용하는 수식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DSGE 소비 오일러 방정식. 두 번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세 번째, 블랙-숄즈 방정식. 네 번째, NKPC 방정식.

$$U'(C_t) = \beta E_t[U'(C_{t+1})(1 + r_{t+1})]$$

그리고,

$$Y = AK^{\alpha}L^{\beta}$$

그리고,

$$\frac{\partial V}{\partial t}+\frac{1}{2}\sigma^2 S^2\frac{\partial^2 V}{\partial S^2}+rS\frac{\partial V}{\partial S}-rV=0$$

그리고,

$$\pi_t=\beta E_t[\pi_{t+1}]+\kappa x_t$$

실제로 이러한 비선형 방정식들이 현실 자료에 부합하도록 '로그-선형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은, 굳이 따로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델의 기본 형태는 언제나 $y = aX + b$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다음, 기하학적 도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물리학 수식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시간성'을 확보한다.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이를 상세히 증명한 바 있다. '내재적인 시간성'이란, 동적인 비율의 세계인 역학을 뜻한다. 이는 데카르트 좌표계 자체가 이미 '내재적인 시간성'을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인간의 선험적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선험적 통각에 의한 종합의 통일성을 통해 상세히 증명했다. 데카르트 학파는 사물의 고유성과 연장성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미 그 시도 자체로 미루어 보아 '내재적인 시간성'을 확연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데이비드 흄은 '오성에 관하여'에서 사물과 사물 사이의 진공 상태가 추상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논증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학자들도 추상적으로 사물과 사물 사이의 진공 상태를 가정할 이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의 직관과 이성으로 쉽게 분별할 수 없는 비율의 종합은 '발견'에 의해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그 자체로 내재적인 시간성을 이미 확보하는데, 뉴턴은 그 존재 의의를 동적인 비율의 종합으로 다시 소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부록 '칸트 철학 비판'에서 칸트가 직관적 인식을 대부분 소홀히 하고 추상적 사고라는 원칙론을 위시했다고 비판한 부분은 다시 재고될 여지가 있다. 칸트는 직관적 인식을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간의 선험적인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한 철학자가 된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수의 존재성을 추적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다각형으로 원의 둘레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미 그 행위 자체는 '내재적인 시간성'을 확보하며, 그로 인해 사물의 고유성과

연장성을 동시에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고로, 뉴턴이 가시화된 동적인 비율의 종합을 소개한 뒤로 수학과 물리학은 역학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공급의 효용 곡선은 이러한 맥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산출량과 가격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시간성을 담보하는데, 그것을 통해 아무것도 그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래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중 산출량 X_1과 가격 Y_1을 지정하여 그 절충점을 P로 놓을 수 있다. 그렇다면 P를 기점으로 작은 직사각형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뒤따른다. 작은 직사각형을 일정한 크기로 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각선으로 등분하여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든 뒤, 각 삼각형을 또 두 개의 삼각형으로 등분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중 하나의 삼각형을 당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경제학에서 표현하는 수요와 공급의 효용 곡선은 내재적인 시간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42] 실제 물리학 방정식의 도입과 그 내재적 한계

그렇다면 실제로 물리학자 볼츠만의 열역학 방정식을 빌려 이를 비선형 모델로 제시한 다음, 현실 데이터에 맞춰 선형화 모델로 재구성하고, 이어서 그 방정식을 본래의 물리적 변수로 치환하여 변형된 거시경제 모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구성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모델은 한 국가를 '닫힌 계'로 설정하고, 거시경제 시스템이 구조적 부채(ΔE)를 극복하여 생존할 확률(P)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t) = exp\left(-\frac{\Delta E(t)}{\kappa \cdot T \cdot \Omega}\right)$$

$$\Delta E(t) = [D_0 \cdot (1+g)^t] - [A_0 \cdot (1+r-\epsilon)^t]$$

$\Delta E(t)$는 한 국가의 총 부채와 자산 축적의 격차를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순부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발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항이다. D_0는 초기 부채를, A_0는 국가 자산을, g는 부채 팽창률을, r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ϵ은 국가의 누수 계수를 뜻한다. 이어서, κ는 긴축 재정, 증세, 구조조정 등 거시경제적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대중의 의지와 신뢰를 나타내고, T는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의 투명성을, Ω는 자본의 기계적·구조적 효율성을 뜻한다.

그렇다면 초기에 설정한 $P = e^{-x}$ (여기서 $x = \frac{\Delta E}{\kappa \cdot T \cdot \Omega}$)의 테일러 급수 전개를 보도록 하자.

$$P \approx 1 - \left(\frac{\Delta E}{\kappa \cdot T \cdot \Omega}\right) + \frac{1}{2}\left(\frac{\Delta E}{\kappa \cdot T \cdot \Omega}\right)^2 - \frac{1}{6}\left(\frac{\Delta E}{\kappa \cdot T \cdot \Omega}\right)^3 + \cdots$$

제1항은 완전한 균형 상태의 경제를 나타낸다. 제2항은 부채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보여준다. 그리고 제3항부터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연쇄적 침체기를 드러낸다.

$$T(t) = T_{avg} + \sum_{n=1}^{\infty} A_n \cos(n\omega t + \phi_n)$$

$\sum_{n=1}^{\infty} A_n \cos(n\omega t + \phi_n)$은 단기적 정치 파동을 가리키며, T_{avg}는 기초 투명성을 표시한다.

$$J = d\alpha + \delta\beta + \gamma$$

이는, 자본 흐름의 호지 분해를 말한다. 즉 거시경제라는 위상 다양체 $\mathcal{M}$ 위에서 흐르는 '모든 자본의 흐름'을 하나의 1차 미분 형식인 J라고 정의한 뒤, 구멍의 총량이 아닌 구멍의 존재성과 그 구멍에 갇힌 자본의 비중을 중심으로 추적하면 진단의 문제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조화 형식인 γ의 존재성을 추측해야 한다.

$$\Omega(M,J) = \frac{\|d\alpha\|^2}{\|J\|^2} = \frac{\|d\alpha\|^2}{\|d\alpha\|^2 + \|\delta\beta\|^2 + \|\gamma\|^2}$$

또는,

$$\Omega(M,J) = \frac{1}{1 + c \cdot \frac{\|\gamma\|}{\|d\alpha\|}}$$

여기서 c는 자본 왜곡에 대한 경제 구조의 민감도 상수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생존 확률 $P(t)$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P(t) = exp\left(-\frac{\Delta E}{\left[\kappa_0 e^{-\mu|\dot{\Omega}|}\right] \cdot \left[T_0 - \lambda(\Delta\Omega)^2\right] \cdot \Omega(t)}\right)$$

이는, 구조적 건전성(Ω)의 건조한 공학적 개입이 요구될수록, 필히 사회적 합의와 한 국가의 정치에 관해서도 큰 영향을 끼치게 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kappa(t) = \kappa_0 \cdot exp\left(-\mu\left|\frac{d\Omega}{dt}\right|\right)$$

그리고,

$$T(t) = T_0 - \lambda \cdot (\Delta\Omega)^2$$

이제 우리는 이 비선형 방정식 모델을 실제로 근사화할 수 있도록 선형 모델로 다듬어 보자. 이에, 거시경제 정상 상태와 로그 편차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kappa(t) = \kappa^* e^{\hat{\kappa}(t)}, \quad T(t) = T^* e^{\hat{T}(t)}, \quad \Omega(t) = \Omega^* e^{\hat{\Omega}(t)}$$

따라서,

$$\frac{1}{\kappa T \Omega} = \frac{1}{\kappa^* T^* \Omega^*} e^{-(\hat{\kappa}+\hat{T}+\hat{\Omega})} \approx \alpha\left(1 - \hat{\kappa} - \hat{T} - \hat{\Omega}\right)$$

즉,

$$ln\, P(t) \approx -\alpha \Delta E(t) + \alpha \Delta E(t)\hat{\kappa}(t) + \alpha \Delta E(t)\hat{T}(t) + \alpha \Delta E(t)\hat{\Omega}(t)$$

Ω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hat{\Omega}(t) \approx -c \cdot V(t), \quad \left(V(t) = \frac{\|\gamma\|_t}{\|d\alpha\|_t}\right)$$

고로, 최종적으로 OLS 모형 또는 VAR 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_t = \beta_0 - \beta_1 \Delta E_t + \beta_2(\Delta E_t \cdot \hat{\kappa_t}) + \beta_3\left(\Delta E_t \cdot \hat{T_t}\right) - \beta_4(\Delta E_t \cdot V_t) + \epsilon_t$$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래 볼츠만 열역학 방정식의 변수로 치환하여 그 자연스러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P(E) \propto exp\left(-\frac{\Delta E}{k_B \cdot T}\right)$$

ΔE는 입자가 특정 상태로 전이하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넘어야만 하는 물리적 에너지의 최소 요구량을 나타내고, k_B는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자연계의 불변 상수이자, 미시적인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거시적인 온도를 우아하게 연결하는 볼츠만 상수

다. 그리고 T는 절대 온도를 가리키고, Ω는 거시적인 상태를 구성할 수 있는 미시적인 경우의 수, 즉 계가 차지할 수 있는 물리적 위상 공간의 부피를 나타낸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한다. 왜냐하면 물리학 상수와 변수는 그 자체로 연속적인 비선형의 일정한 세계를 보여주는 반면, 경제학 상수와 변수는 그 자체로 아무런 실체도 보여주지 못하는 참사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경제학 상수와 변수는 자연계를 조금도 표상하지 못하는가? 반대로 어째서 물리학 상수와 변수는 자연계를 완벽히 표상하는가? 수학의 기본적인 본성은 바로,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수를 바탕으로 하는 비율의 세계이자 곱셈의 세계이며, 이는 곧 유비와 유비의 연속적인 비선형을 처음부터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실제 물리학 방정식을 '그 자체'로 적용하려고 노력해도 좀체 조율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경제학은 필히 '선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시간에 따른 점진적인 분석을 통해 그 결괏값을 차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내재적인 단위의 부재다. 볼츠만의 열역학 방정식은 분자의 에너지와 분모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소거되는 반면, 위에서 예시로 보아왔던 변형된 열역학 방정식의 변수는 그 자체로 단위를 전혀 내포하지 못하는 중대한 단점을 품고 있다. 그래서 단위를 억지로 맞출 필요성이 부각되는데, 사회적 합의 변수인 κ를 다시 구상하여 '사회적 고통 분담의 절대적 자본 한계치'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자의 화폐 단위와 분모의 화폐 단위가 깔끔하게 소거되면서 실제로 계산이 가능한 순수한 숫자로 환원된다. 하지만 물리적 단위는 본디 내재적이다. 즉 이렇게 설정한 κ의 내재성은 작위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물리학 방정식에서 억지로 베껴 온 경제적 모형은 그 자체로 단위량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단위량은 본질적으로 비율의 세계이자 연속적인 곱셈의 세계에서 부드럽게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제도의 투명성을 가리키는 T가 0에서 마이너스(−)로 추락하게 되면 필히 '음수'가 되어, 전체 지수 값은 양수(+)로 뒤바뀌는 참사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다. T가 0에 도달하는 그 순간을 '임계점'으로 설정하고, $T > 0$인 구간에서만 정의하거나, 또는 헤비사이드 계단 함수를 도입하여 0 이하에서는 $P = 0$으로 강제 종료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 역시 심히 작위적일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이 모델은 본질적으로 내생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변수와 변수가 서로 얽히고설키며 특히 민감도 상수인 μ나 λ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때 지속적인 '편의'가 발생하여, 결국 학술적으로 큰 신뢰를 잃게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다섯 번째, 이 모델의 치명적인 단점은 '합리적인 개인'의 존재성이 부재하다는 점에 있다. 마치 볼츠만 상수가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매개하듯, 개별 주체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만 각 개인과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의 총합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모델은 국가를 단지 하나의 거대한 열역학적 '계'로 취급할 뿐,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사회적 합의 변수로 귀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즉 미시적 기초가 완전히 결여된 상황이다.

얀 틴베르헌은 뉴턴의 중력 방정식을 그대로 베껴 무역 중력 모형을 만들었다. 디디에 소르네트는 물리학의 상전이 방정식을 가져와 금융 시장의 거품 붕괴와 주가 폭락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했다. 수학자 프랭크 램지는 물리학에서 입자가 최소 에너지를 소비하는 궤도를 찾는 역학 공식을 차용해, 국가가 시간에 따라 소비와 저축을 최적화하는 거시경제의 동태적 성장 모형을 창시했다. 빅터 야코벤코는 기체 분자들의 에너지 충돌을 설명하는 볼츠만 방정식을 그대로 가져와, 인간 사회의 소득 분배 역시 자연계의 열역학적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라 절대다수의 평범한 임금 노동자 계층은 지수 분포를, 극소수의 최상위 자본가 계층만이 파레토 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증명했다. 통계물리학자인 슈타우퍼와 경제학자 룩스는 자석 내부의 원자 스핀 정렬을 설명하는 이징 모형을 금융 시장에 이식하여,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를 양자 통계역학적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모래더미 모형'을 만든 물리학자 페르 바크의 개념을, 저명한 거시경제학자 셰인크만과 우드포드가 가져와 거시경제의 재고 순환과 경기 변동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 차용했다. 벨랄 바키는 이자율 모델과 금융 파생상품의 변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슈뢰딩거 방정식과 양자장론의 파동 함수 경로 적분 기법을 경제학에 그대로 도입했다. 이 밖에도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모델도 현실을 정확히 대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1세기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수학적 수식과 통계 자료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단 하나, 면책(免責)이다. 상급자에게 수학적 수식과 통계 자료를 건네주기 위한 최소한의 '알리바이(Alibi)'이자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다. 그래서 수학적 수식과 통계 자료에 대한 진실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언제나 상급자가 원하는 결과가 있으며, 그 결과를 내기 위해 통계와 수식에 조작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급자가 원하는 그 결과란 훗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말한다. 이는 '관료제'라는 구조적인 형식에서 쉽사리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이다. 그래서 수식에 대한 진실성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수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란 그 진실성에 대한 여부보다 그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관료제의 큰 자본 혜택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들은 항시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것을 강박적으로 행하는데, 그 결과에서 비롯되는 투자금과 지원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역시나 반복해서 말하자면 면책 조항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불가능케 한다.

[44] 일상에서의 거시경제학, 첫 번째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교섭하여 계약 관계를 형성하였다. 당초 이 과정에서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로 말미암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임대인의 횡포로 인하여 임차인의 피해와 고충이 가중되자, 국가는 임차인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임차인의 권익을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편됨에 따라, 역으로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이번에는 임대인이 불이익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제도가 개입하게 되었으나, 중개인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을 떠

안게 되어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들 중개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차 법률 조항이 개편되었다. 중개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자 또다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각자의 피해를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였고, 끊임없는 권리의 충돌과 억울함의 호소 속에서 수십 년에 걸친 법령의 개편이 반복된 끝에, 비로소 임대인, 중개인, 임차인 3자가 상호 견제 속에 균등하게 보호받는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45] 일상에서의 미시경제학, 첫 번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명도)함에 있어,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내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은 목적물 내 벽지 일부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변색된 훼손을 발견하였고, 이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원상회복 및 그에 상응하는 비용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임차인은 해당 공간이 본래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신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존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훼손이 불가피했다고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본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복구를 강경하게 주장하며 당초 요구한 배상 결정을 결코 철회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 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과 분쟁 끝에, 결국 해당 사안은 상호 양보와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 임차인이 임대인 요구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배상하는 선에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46] 일상에서의 거시경제학, 두 번째

재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교섭력의 차이로 인하여 판매자의 우월적 지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물품을 인도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입증할 방도가 마땅치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소비자의 재산상 불이익이 누적되자, 국가는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폭넓게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환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편향되자, 이번에는 이를 악용하여 재화를 충분히 사용한 후 부당하게 반환을 요구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악성 소비자가 등장하였고, 그로 인해 판매자의 영업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판매자들은 반품 불가 특약을 남발하고 교환 절차를 극도로 까다롭게 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선량한 일반 소비자들조차 정당한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소비자의 불만과 판매자의 억울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국가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를 세분화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도를 다듬어 왔으나, 여전히 양측의 권리 남용과 방어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47] 일상에서의 미시경제학, 두 번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의류를 매수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내에 단순 변심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함에 있어, 판매자는 반환된 목적물의 상태를 검수하고 환불 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는 목적물에 부착되어 있던 상품 가치 보존용 태그(tag)가 훼손되고 미세한 착용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소비자의 사용에 의한 재화 가치의 현저한 감소로 규정하여 청약철회를 거절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단지 치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시착했을 뿐이며, 태그는 포장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탈락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판매자가 부당한 사유로 대금 환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다른 구매자에게 재판매가 불가능해진 금전적 손해를 감수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원물 반환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양

당사자는 배송비와 환불 수수료라는 소액의 금원을 두고 수일간 극심한 감정적 언쟁과 비방을 주고받았으며, 결국 해당 사안은 소비자보호기관의 중재 끝에 소비자가 상품 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환급받는 형태의 불만족스러운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48] 일상에서의 거시경제학, 세 번째

단시간 근로계약(아르바이트)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과거 노동시장은 사용자의 우월적 교섭력에 기인하여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는 불공정 계약이 만연하였다. 사용자의 권한 남용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피해가 가중되자, 국가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 법령을 제정·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역으로 영세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상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이번에는 사용자가 생계의 곤란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호소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사용자는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 형태의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게 되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노동 시간 파편화와 심각한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여 재차 근로자들의 극심한 피해 호소와 권리 구제 요구로 이어졌다.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각자의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제도는 임시적 보완과 개편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현재와 같은 단시간 고용 구조의 왜곡이 고착되었다.

[49] 일상에서의 미시경제학, 세 번째

단시간 근로계약의 존속 중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일방적인 퇴사를 통보함에 있어, 사용자는 대체 인력의 부재로 인한 영업상 차질과 손해를 근거로 당초 약정된 인수인계 기간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출근 의무를 해태하자,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나아가 영업 손실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의 강도 높은 업무 환경과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 및 지휘권 남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근로 제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항변하며, 기발생한 임금의 미지급은 위법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인의 재산권 및 영업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복구를 주장하며 지급 거절 의사를 결코 철회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 간의 극심한 감정적 대립과 법적 조치에 대한 위협 끝에, 결국 해당 사안은 노동관서의 진정 및 중재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적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연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역시 무단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감정적 훼손에 대하여 도의적 사과를 표하는 선에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50] 일상에서의 거시경제학, 네 번째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노동시장을 형성함에 있어, 과거 기업은 정보의 우위와 자본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과도한 경쟁을 강요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채용 권력을 쥔 기업의 횡포로 인하여 구직자의 비용 낭비와 고충이 가중되자, 국가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역으로 기업의 채용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이번에는 기업이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객관적 평가 지표의 부재를 호소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우회로로서

기업은 직무와 무관한 과도한 자격 증명을 요구하거나, 불명확한 ‘조직 적합성’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도입하여 채용의 장벽을 재차 높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직자들은 실질적인 직무 역량의 향상보다는 평가 기준에 맞춘 외형적 자격 요건의 축적에 막대한 시간과 재화를 소모하기에 이르렀다. 기업은 실무에 즉시 투입할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고, 구직자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일자리가 없으며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끊임없는 비용의 낭비 속에서, 결국 채용 시장은 양측 모두가 막대한 탐색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상호 불신을 거두지 못하는 현재의 기형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51] 일상에서의 미시경제학, 네 번째

특정 기업의 채용 전형에 지원한 구직자가 최종 면접 및 근로조건 협상 단계에 이르러, 기업은 해당 지원자의 이력과 역량을 면밀히 점검하고 채용 여부에 따른 보상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지원자의 실무 경험 부족과 자사 조직 문화와의 부합성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결핍을 지적하였고, 이를 근거로 당초 지원자가 기대한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 및 불리한 수습 기간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구직자는 자신이 해당 채용 공고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투여한 막대한 매몰 비용과 수차례의 혹독한 전형 과정을 통과하며 입증한 가치를 강조하며 기업의 처우가 자신의 시장 가치를 부당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기업은 내부 임금 체계의 형평성과 미검증된 인력에 대한 리스크 방어를 강경하게 주장하며 당초 제시한 연봉액을 결코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 간의 기대 이익과 자존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쟁 끝에, 결국 해당 사안은 상호 양보를 가장하여 구직자가 기업의 요구액을 수용하되 명목상의 복리후생 혜택을 일부 추가하는 선에서, 내심의 심각한 불만족을 품은 채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52] 일상에서의 거시경제학, 다섯 번째

저작물의 창작 및 유통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거 지식재산권 시장은 자본과 유통망을 독점한 출판사 등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말미암아 창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매절 계약이나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성립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사업자의 권한 남용으로 창작자의 경제적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정신적 고충이 가중되자, 국가는 창작자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고자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역으로 유통 사업자와 소비자의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이번에는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소비자가 문화 향유권의 침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사업자는 창작자의 부가적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를 교묘히 포괄 양수하는 변형된 약관을 도입하게 되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기회를 박탈하여 재차 불공정 계약에 대한 극심한 피해 호소와 권리 구제 요구로 이어졌다. 창작자는 창작의 고통에 상응하는 대가가 부재함을 한탄하고, 사업자는 제작 및 마케팅 비용 회수의 불확실성을 방어하려 하며, 소비자는 콘텐츠의 무상 제공을 당연시하는 끊임없는 권리의 충돌 속에서, 시장은 누구도 온전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불신과 소송만을 양산하는 현재의 기형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53] 일상에서의 미시경제학, 다섯 번째

특정 저작물의 출판 내지 연재를 위한 계약을 전제로 창작자가 완성된 원고를 인도함에 있어, 사업자는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척도로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점검하고 최종적인 수익 배분율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는 대중의 기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하에 원고의 대대적인 수정 내지 훼손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당초 약정된 인세율의 삭감이나 계약 전면 해지를 일방적으로 시사하였다. 이에 창작자는 자신이 해당 저작물에 투여한 고도의 지적 노동과 예술적 고유성을 강조하며, 사업자의 부당한 개입이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시장의 냉혹한 논리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리스크 방어를 강경하게 주장하며 당초 요구한 상업적 타협안을 결코 철회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 간의 예술적 자존심과 자본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쟁 끝에, 결국 해당 사안은 상호 양보를 가장하여 창작자가 원고의 핵심적인 문체나 결말 일부를 사업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변형하는 굴욕을 감수하고, 사업자는 명목상의 선급금을 미미하게 인상해 주는 선에서 내심의 깊은 적대감을 품은 채 저작물이 발행되는 것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54]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 존재인가?

인간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비합리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일 수 없다. 여기서 착각이 발생하는데, 인간이 비합리적인 존재라고 해서 합리성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비합리적인 존재이지만 여하에 따라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근대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충분근거율의 네 가지 뿌리에 관하여』에서 이들의 업적과 성취에 대한 비판보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에 대한 책임만을 물었다. 근대 철학자들은 모두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진리를 요청했다. 근대 철학자들이 말하듯, '인간의 지성'은 신의 선물인 것이다. 하지만 라이프니츠가 『인간지성신론』에서 경험론자 존 로크를 완강히 비판했듯이, 인간에게는 마땅히 설명할 수 없는 선험적인 백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동시에 『변신론』에서 이 세상에 '악'이 명백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충분근거율을 주창했다. 이는 근대 철학자들을 포함하여, 고대 철학자들도 모두 인정했던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비합리적인 세계와 맞서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합리성’이란 진리와 동의어이다. 고로, 합리적인 인간의 정의란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다른 말이 아니다.

플라톤이 진리를 형이상학의 ‘이데아’로 설정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를 다시 지상으로 떨어뜨려 형이하학의 최선을 추구하고자 했다. 바로 이것이 경제학이다. 경제학은 민중 고유의 총체성이기 때문이다. 반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정치학의 조건이다. 그래서 그는 철인 정치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스피노자가 『정치론』 1장 1절에서 과거의 철학자들이 윤리학 대신 풍자소설을, 국가학 대신 가공학을 논했다고 일갈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스피노자 또한 『정치론』에서 그만의 이데아를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의 지성이 어떻게 ‘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조금도 설명할 수 없었다. 인간의 지성은 신의 선물인데, 바로 신의 선물은 진리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는 정치학의 기본 조건이다. 철학자들은 바로 그것을 두고 ‘최선’이라고 불렀다. 반면, 경제학은 민중 고유의 관습법이자 총체성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비코는 “verum ipsum factum” 즉 ‘진리는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다름 아닌 그 진리는 관습법을 지칭하고 바로 그 관습법이 민중 고유의 총체성으로 나타나는 경제학이다.

[55] 돈이란 무엇인가?

고대 시대에 돈이란 물리적 수치심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돈을 취하기를 쉽사리 주저했고, 마치 정부(情夫·情婦)라도 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숨겨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법이 지나치게 발전하여 지리적으로 서로를 인지하게 되자, 더 이상 돈을 탐하는 행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했다.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당시 타락한 로마 상태를 두고 그토록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돈은 타락의 상징으로 기능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돈을 타락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엄연히 ‘신의 전조’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역사가 디오니시오스는 고대 로마 역사를 서술하다 말고, 그가 당시 발붙이고 살았던 로마 관행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데, 본래

중차대한 종교적 관습이었던 새점이 그저 정치인들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새점'이라는 명확한 신의 전조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중세 시기에 이르러 돈의 타락성에 대한 인식은 극대화되었다. 하지만 중세는 다시 돌아온 야만시대라, 기독교와 교황의 세력권에 힘입어 횡행한 야만과 지성이 조금도 조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코는 단테를 가리켜 '중세의 호메로스'라고 칭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단테는 라틴어 말고 토착어로 노래했는데, 그 스스로도 인정하다시피 토스카나 방언은 지극히 조야했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 극작가 플라우투스는 라틴어를 가리켜 '야만인의 언어'라고 지칭했다. 이는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조야함과 세련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는 문장(紋章)이 그 사실을 대변하는데, 방패 위에 아로새겨진 독수리와 곡식(밀 이삭)의 형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비코가 주장했던 것처럼, 곡식이란 바로 황금을 뜻하고 그 황금이란 '밭의 경작'과 관련된 역사다. 그리고 독수리의 상징은 정확히 나폴레옹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끊어진다.

화폐, 인구, 행정의 발달로 경제학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돈은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치심'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르는 현재까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상이 되곤 한다. 즉 민중 고유의 총체성은 여전히 그것을 수치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명예와 권력을 좇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왜냐하면 21세기에는 명예와 권력의 진정한 의미를 모조리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을 좇는 사람은 과거와는 달리 부정적인 대상이 된다. 극단적인 이성의 발달로 모든 것이 해체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야만시대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반대로 화폐·인구·행정의 지나친 발달을 부추겨 오히려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버리고 말았다. 경제학자들은 발달된 행정적 데이터를 추출하여 방정식을 세우고 통계 자료를 내세울 수 있었다. '일반 균형'은 바로 이렇게 성립이 된다. 왜냐하면 무수히 범람하는 원의 반경이 빽빽하게 밀집하게 되면 마치 아름다운 모르포나비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들이 뿔뿔이 해체되어 매일 '창조적 대체'를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음료수 A의 마지막 효용이 체감되어 음료수 B로 이동했을지라도 다른 사용자가 음료수 A를 금세 소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21세기는 돈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용에 대한 가치 중립’이다. 곧 그것을 ‘효용’이라고 부른다. 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들은 돈, 명예, 권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명예와 권력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기 때문인데, 다름 아닌 신의 전조로 말미암은 관습법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21세기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하다. 고로, 21세기는 ‘아무것도 없음’이 된다. 19세기는 조잡한 법률 조항이, 20세기는 조잡한 이념의 표현이, 반면 21세기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의 전조를 완전히 잃어버린 시민들은 오히려 신의 전조를 복권시키고 싶어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21세기 시민들은 극단적인 이성의 발달로 지친 나머지 다시 원시시대를 선망하고 또 동경한다. 같은 예로, 21세기는 그 어떤 이념으로도 표현이 되지 않아서 아무도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Post-postmodernism)’이라는 식으로 통칭하지 않는다.

경제학 용어는 21세기에 이렇게 정의된다. 생산과 소비란 거시적인 일반 균형에 따라 수요와 공급 그 이상도 아니다. 이자란 금리의 다른 말이 아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말했듯, 이자란 마치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듯이 이런 자연스러운 개념이 전혀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자율이란 국가의 통제와 그로 인한 은행의 통제 등 거시적인 존재체의 통제로 인한 영향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자율 조정’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이다. 실제로 이자율은 조정이 되는 대상이다. 레옹 발라는 ‘등호’ 표시를 적극 사용했는데, 바로 등호 표시가 일반 균형의 원형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등호 표시는 물리학에서 ‘보존’의 의미다. 그래서 물리학은 언제나 보존을 중요시하여, 그 결괏값이 ‘0’이 나타나야 한다. 물리학은 보존의 의미를 ‘우주의 보존’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에너지-보존 법칙을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표현하는 등호 표시는 보존의 개념이 아닌, 화폐·인구·행정의 지나친 발달로 파생한 데칼코마니 착시에 지나지 않는다. 즉 화폐·인구·행정 중 하나라도 변동을 보이는 순간 등호 표현은 그 자체로 성립이 불가능하다. 본디 수학에서 ‘등호(=)’란 단순한 외적 대칭이 아니라, 군(Group)·환(Ring)·체(Field)라는 엄밀한 대수적 구조 안에서 어떠한 연산을 거쳐도 양변의 본질이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동치’ 관계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고로, 성욕-불안-죄성은 유비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채 지속적인 평형을 이룬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군중이라는 개념을 Mængden으로, 그리고 인간의 무도덕(무정신)적인 상태를 Åndløshed로 각각 지칭했다. 여기서 무도덕과 비도덕을 확연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는데, 비도덕은 적어도 도덕의 기본적인 가능성의 앎을 뜻하고, 무도덕은 적어도 도덕의 기본적인 가능성의 무지를 뜻한다. 그래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비도덕적인 상태보다 무도덕적인 상태가 더욱 '비참한 절망'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이들은 그리 비참한 절망에 빠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정신의 깊이가 아득히 얕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험적인 관계도를 성욕-불안-죄성으로 놓을 수 있는데, 이는 19세기부터 경제학이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곡선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성욕-불안-죄성도 더 이상 어떤 하나의 '수치심'이나 '경건함'으로 대변되지 않고 '열등감'이라는 단 하나를 향해 평형점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유비는 웅장한 자연을 보고 조금도 숭고함에 도취되지 못한다. 숭고함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인처럼 필히 성욕과 불안의 폭발적인 도약이 일어나야 하고 그 반동으로 크게 작용하는 죄성의 깊이가 이 두 가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상태여야만 하는데, 물리적 유비는 지속적인 균형점만을 찾는 탓에 이러한 일시적 도약과 일시적 폭발을 전혀 이해할 수도, 감각할 수도 없는 불구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유행에 휩쓸리고, 소문에 취약하며, 깊은 사유 과정조차 없이 눈앞에 놓인 사물의 양태를 손쉽게 판단하는 버릇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기를 19세기 이후부터 위치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적어도 수치심과 경건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성로마제국은 1806년에 해체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여태 논했던 것처럼 나폴레옹이 로마 마지막 계승자였다는 시기와 일치한다. 신성로마제국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무도덕적인 군중이라는 유비는 결코 깊은 사유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의 성욕-불안-죄성은 언제나 한결같다고 볼 수 있다. 성욕과 불안의 도약은 미미하고, 이 두 가지를 잡아당기는 죄성 또한 미미한 법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점이 금세 발견된다. 현대인들은 항시 상품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성욕과 불안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전혀

비례하지 않은 죄성의 얕음이라는 비평형 상태를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부단한 착각이 발생한다. 이들은 결코 성욕과 불안의 일시적인 도약을 좀처럼 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웅장한 자연을 목도하고도 숭고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칸트가 위대한 비판서에서 주창했던 것처럼 도덕적으로도 심히 결여된 상태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칸트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선험적인 도덕은 결코 아닌, 역동적인 도덕의 심각한 결여만을 뜻할 뿐이다. 바로 그 역동성은 성욕-불안-죄성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대변된다. 그래서 이는 선험적 도덕이 아닌, 도덕을 함양하는 '삶의 태도'와 직결된 방법론이 된다.

따라서 무도덕적인 군중이라는 유비는 항시 성욕과 불안의 지속적인 증가만 있을 뿐이며,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잡아당기는 죄성의 지속적인 증폭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필시 어떤 순간에 폭발적인 직관이 발생해야 마땅할 것인데, 그것은 슐라이어마허가 『종교론』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그 어떤 수단으로도 제한이 될 수 없는 내면의 조용한 무한함을 직관할 수 있는 '자아'를 이해하는 일이다. 고로, 물리적 유비는 내면의 응축됨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보아도 경제학의 발전과 함께 이들의 유비적 상태도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경제학이 늘상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일반 균형을 피력하듯이, 이러한 물리적 유비의 성욕-불안-죄성 역시 언제나 일반 균형된다고 볼 수 있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인간의 무도덕적인 상태는 바로 이를 뜻한다.

[57] 성욕-불안-죄성은 합리성에 근거할 수 있는가?

먼저, 두 가지로 확연히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 합리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이다. 만약 그것을 '이데아'로 확립하면 정치학의 기본 조건이 된다. 반면, 그것을 민중 고유의 총체성으로 수립하면 경제학의 기본 조건이 된다. 우리는 전자를 크게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플라톤이 주장했고, 칸트가 주장했던 것처럼 동굴 밖을 빠져나간 천재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학은 언제나 최선으로 마땅히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 최선이란 고대 로마에서는 파테르인 원로들이 직접 신의 전조를 받고 주관해 왔다. 시간이 흐르

고 언어가 분절되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기하학적인 공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들이 역설한 정치학의 최선은 스피노자가 논했던 바와 같이 풍자소설이자 가공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성욕-불안-죄성이 지속적으로 일반 균형된다고 해서, 합리성에 근거할 수 없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셈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언제나 결과를 나타내고 원인을 대변하는데, 그것이 곧 민중 고유의 보편적인 총체성이 되고 그것을 두고 감히 거짓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필히 경제학은 거짓이 되어야 하고, 민중 고유의 총체성도 거짓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관습법이 거짓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민중 고유의 총체성은 언제나 진실이다. 하지만 진실이 그렇다고 하여 결코 정치학의 기본 조건인 '최선'을 지향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 된다.

[58] 경제학의 새로운 발견

항상 그렇듯, 21세기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총체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표층(表層)만 두드리는 중이다. 하지만 위에서 강조했듯, 경제학의 진정한 본질은 민중 고유의 총체성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나, 세금 규제나, 소득 불평등의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이 방정식과 함께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그 어떤 것도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경제 전반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단 하나 말고는 존재할 수 없다. 경제학의 본질적인 의미가 민중 고유의 총체성이라면, 마찬가지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방법은 민중 고유의 '투명성'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선(善)-덕(德)-중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관습법이 어긋나 있다면 항시 모든 게 어긋나는 법이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사회의 어떤 부분이 현재 곪았는지, 병이 들었는지,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부를 도려낼 준비를 마

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상에 대한 해결은 임시적일 뿐, 또다시 상처가 틈을 비집고 가시처럼 올라올 것이다. 물론 현재처럼 극심한 관료제 덕분에, 존경하는 우리 상급자분들께 면책 조항이라는 통계 자료를 손수 건네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 존경하는 상급자분들은 본인들에게 '해(害)'를 가할 수 있는 여지를 절대 남겨 두지 않는 법이니 말이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며, 강산이 아름답게 두 번 바뀌게 되면 그제야 외면해 왔던 사항의 올가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핏덩이들의 목을 강하게 조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들이 항시 실적을 중요시하고, 또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장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미래의 핏덩이든 나발이든 딱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비록 신의 전조를 잃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총체적인 관습법까지 언제까지나 잘못되리라는 법은 없다. 경제학은 여전히 어두운 샛길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곳에 발을 들이미는 순간 헤매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치학은 선으로 나아가는 자발적인 선택의 연속이라면, 경제학은 민중 고유의 총체적인 관습법에서 기인한 비자발적인 의지의 연속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언제나 그 결과로 원인을 대변한다. 동시에 그 결과로 각 사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만약 그 사회의 토대를 구성하는 널판지에 수많은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는 상태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사회는 현재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다시 그 사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만이 상식적인 도리일 것이다. 이는 민중 고유의 총체로서만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중 전체의 비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경제학의 이율배반이 새롭게 성립하게 된다.

첫 번째 질문: 경제학은 민중 고유의 자발적인 관습법이다.
두 번째 질문: 경제학은 민중 고유의 비자발적인 관습법이다.

필히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선으로 나아가는 자발적인 동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는 정치학에 더욱 가깝다.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어긋난다. 왜냐하면 정치인 또한 투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선으로 나아가는 비자발적인 동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는 민속학에 더욱 가깝다.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어긋난다. 왜냐하면 민중들 또한 투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학은 전자로서 성립이 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은 언제나 '시간'이 결정해주는데, 이는 자발적인 동의와 더욱 거리가 멀다. 그래서 경제학은 민중 고유의 비자발적인 관습법에 맡겨야 한다. 그렇다면 자발적인 관습법을 정치학에 맡길 필요가 있다. 경제학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언제나 민중 고유의 무의식적인 총체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경제학을 실천할 수 있는가? 좋은 경제학은 좋은 교육과 함께 나아가며, 좋은 교육이란 비자발적인 행복과 함께 나아간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로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 좋은 교육은 언제나 행복과 함께 동반한다. 그리고 행복은 운율과 함께 동행한다. 고로,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민중 고유의 행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코가 말했고, 호라티우스가 말했던 것처럼 마땅한 시인이라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방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수백 년 동안 자연스럽게 축적된 민중 고유의 관습법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 빈틈을 정치학이 대신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선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길목은 언제나 좋은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가 건강하면 정치도 건강하고, 경제도 건강한 법이다. 고로, 프랑수아 케네가 강조했듯이 경제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혈맥이자 동시에 본질이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두고 우리는 '좋은 교육'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윤리다. 그래서 수천 년 전 현자들이 줄곧 '윤리학'을 가장 최우선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다. 윤리학은 삶의 태도다. 지혜는 바로 이를 일컫는다.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 사람을 두고 감히 행복하다고 지칭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태도가 풍부한 사람은 그 누가 보더라도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삶의 태도야말로 경제학의 진정한 본질을 구성한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민중 고유의 총체적인 관습법인데, 바로 이것이 삶의 태도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농주의자와 고전 경제학자는 총체적인 경제학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들만큼 경제학의 진정한 본질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이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본받고 배워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윤리학을 가르쳐 주었다.